202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안전문화 꽃을 피우자

202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 안전문화 꽃을 피우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꽃을 피우자

202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발간사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안실단 활동에 동참하기를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 간 산업안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OECD 38개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산업안전에서는 아직까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체기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적 노력 외에도 안전문화에 주목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문화 정착'을 제시했습니다. 안전문화는 자칫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중대재해 감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법·제도적 노력의 기본 토대가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으로 유명한 하인리히(Heinrich)는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안전한 행동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은 엄격한 규제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노·사가 안전을 '비용과 불편'이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아직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습니다.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때로는 안전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해 상황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민·관합동 기구인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안실단)'이 2023년 3월 출범하였습니다. 39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안실단이 활동 중이며, 안실단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일선지사,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기업, 노·사단체 등 출범 첫 해에만 약 900여 개에 달하는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실단은 지역 내 주요 사업장과 인구밀집지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기업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의 포장을 통해서도 안전문화 메시지가 전국 각지에 전파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도 '안실단'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 사례집은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안실단의 여러 활동과 노력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지역 안실단은 최근 증가한 배달종사자의 재해에 착안하여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안실단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조선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광주지역은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안전문화 결의대회를 실시하여 각계에서 안전문화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힘썼습니다.

전국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 온 안실단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이번 활동 사례집을 통해 보다 많은 분께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실단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서도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안실단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실단이 안전문화를 나르는 전령이 되어 전국을 안전문화의 가랑비로 흠뻑 적실 수 있게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

Contents

개요

지역 중심,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8

Part 1 서울, 강원권

서울 | 건설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 14
서울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19
이마트 안전 Chief파트너 안정훈 부장
강원 | 강원도민과 함께 손잡고 안전을 나르다 20
태백·삼척 |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 24
강릉 | KTX 강릉역사 랩핑광고 및 커피축제 연계 캠페인 28
원주·횡성 | 기업, 군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32
영월·평창·정선 | 정선아리랑제 축제 연계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 36

Part 2 부산권

부산 |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42
부산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47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 최미리 주무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송대영 본부장
창원 | 가족의 안전을 응원하고, 내일의 안전을 기약하다 48
울산 |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52
양산 | 안전슬로건 노출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56
진주 | 생활 곳곳 꽃 피우는 안전문화 60
통영 |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안전일터 만들기 64

Part 3 대구권

대구 |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0
대구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75
대성에너지 SHE팀 이재원 팀장
포항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76
구미 | 민·관이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의 닻을 올리다 80
영주 | 안전문화 확산 제 일처럼, 제일처럼 84
안동 | 경북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안전공감대 88

Part 4 중부권

인천 | 안전 대한민국 인천에서부터 94
인천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99
동서식품 부평공장 산업안전보건팀 허정식 팀장
경기 | 지역 맞춤형 족집게 안전문화 홍보 100
부천·김포 | 감성안전을 위한 발걸음 104
안양 | 우리 사는 안양, 실천하는 안전 108
안산 | 재해 없는 도시, 안전일터 안산 112
의정부 |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안전문화를 꽃 피우다 116
성남 | 지역의 안전문화 선도하는 초석 120
평택 | 물류창고 산재 예방을 위해 124
고양·파주 | 예비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취업 컨설팅 추진 128

Part 5 광주권

광주 | 하나되는 일터, 안전한 광주 134
광주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139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이종관 부장
전주 | 한옥마을부터 부안댐 물문화관까지 관광객을 찾아가는 캠페인 140
익산 | 나부터 예방하는 추락사, 모두의 안전을 지키다 144
군산 |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안전문화 148
목포 | 『건설현장 대형 수직방호막』 설치로 시선을 사로 잡다 152
여수 | TV 캠페인 영상과 맞춤형 슬로건으로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 전개 156
제주 | 명확한 콘셉트 꾸준한 캠페인으로 안전 제주 만들기 160

Part 6 대전권

대전·세종 | 대세(대전·세종)는 안전문화 166
대전·세종 안실단 우수사례 인터뷰 171
대전MBC 남유식 아나운서
청주 | 맞잡은 손에서 피어나는 안전문花 172
충주 | 안전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다리 'Safety Bridge' 176
천안 |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운영 180
보령 | 재미있고 알차게 깨닫는 안전문화 184
서산·태안 | 대형 화재와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장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188

본부 특별활동 사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194

개요

지역 중심,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전국을 3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언론사, 노·사단체 등 총 867개 민·관단체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은 정부 중심의 Top-Down 방식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벗어나, 지역부터 시작하는 Bottom-Up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조직으로 노·사 모두가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이행하며 성숙한 안전문화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 취지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제도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거나,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엄정한 처벌 규정과 각종 지원 사업이 존재하여도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와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만연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사 등 다양한 안전주체들이 참여한 안실단을 구성하였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활동

‘투 트랙(two-track)’ 운영으로 기획부터 확산까지!

안실단은 중앙(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공단 본부)과 전국 39개 지역별로 나뉘어 ‘투 트랙(two-track)’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은 안실단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국단위 활동을 기획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역별 안실단은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 활동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❶안전문화 노출하기(홍보슬로건 배포 등), ❷안전문화 참여하기(기업 협업, 공모전 등), ❸안전문화 응원하기(지역행사 연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추진하였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중앙활동

중앙차원에서는 주로 각 상황과 장소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홍보슬로건 및 디자인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고속철도역, 지하철역 전광판 등 각종 생활매체에서 이런 안전문화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중앙차원의 협업활동으로 전국 택배상자, 고지서 등을 통해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안실단’ 전용 누리집(https://www.kosha.or.kr/safety1team)을 개발하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에서 제공, 지역별 ‘안실단’ 간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실단 누리집 바로가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중앙활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활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활동

지역에서는 관내 기업, 지역 축제를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 및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내 사업장 상품을 활용한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역별 언론사, 민간재해예방기관, 업종별 협의회 등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 활용사례

술잔은 꺾어도 안전은 꺾을 수 없습니다
(부산, C1소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서울, 서울우유)

Part 1

서울, 강원권

안전문화 캠페인과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확산하는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14

서울
건설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

20

강원
강원도민과 함께 손잡고
안전을 나르다

24

태백·삼척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

28

강릉
KTX 강릉역사 랩핑광고 및
커피축제 연계 캠페인

32

원주·횡성
기업, 군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36

영월·평창·정선
정선아리랑제 축제 연계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

19

우수사례 인터뷰
이마트 안전 Chief파트너 안정훈 부장

서울

건설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

지난 3월 10일 출범한 서울지역 안실단. 서울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서울시, 업종별협의회,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역신문사 등 24개 기관이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지역의 산업 특성과 빈번한 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시행되는 캠페인, 세미나, 안전지침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오츠카, 대우건설 함께 진행된 서울지역의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 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모 쓰기 합동 캠페인'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모 착용 캠페인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꼼꼼한 모니터링

서울시는 대규모 뉴타운 아파트 건설, 재개발공사, 철거공사 등 건설업을 위주로 공사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안실단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서울청을 시작으로 강남,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까지(서울지역 내 고용노동청) 총 6개월에 걸쳐 서울지역의 건설현장을 찾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에서는 추락방지시설인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3대 기본인 '안전모 쓰고, 안전대 걸고, 개구부 막고'의 준수 확인과 TBM 연계기법 컨설팅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TF팀을 구성해 '이륜차(퀵서비스업) 합동 캠페인'도 진행했다. 서울 주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실천 서약서를 받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자료를 배포해 의식을 고취하고, 간이 쉼터를 운영해 마실 것들을 제공했다.

근로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메시지 노출

이밖에도 서울지역 안실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통해 둔촌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동아오츠카, 대우건설 등 주요 제조기업과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안전메시지가 적힌 랩핑버스를 통해 안전문화를 홍보하고, 안전모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인식제고에 힘썼다.

서울지역 안실단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2023년 서울지역 조사대상 사고사망재해 22건 중 10건(43.5%)에서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전모 쓰기 합동 캠페인 외에도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콘텐츠로 배포함으로써 분위기 확산을 유도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문화를 확산하다

서울지역 안실단은 주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출근길에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현장에서 안전문화 홍보영상을 지속적 노출하기도 하였다.

지난 2023년 7월 한 달간 서울시메트로 9호선 라인에서 안전문화 조성 및 사고사망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했으며, 출근길 이동 근로자들을 위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사고를 낮출 수 있도록 생수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출근길 캠페인에서는 안전문화를 알리는 스티커를 배포했는데, 특히 안전스티커는 빛을 받았을 때 반사되어 눈에 잘 띄는 이노라이트 재질로 만들어졌다. 심플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만큼, 행사 이후에도 더 배부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지역 안실단은 이밖에도 이동근로자를 위한 얼음물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힘썼다.

일반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 한마당'

서울지역 안실단은 이밖에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11일부터 3일 동안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2023 서울 안전한마당'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 안전 UP! 안젤이와 함께해요' 부스 운영과 위험요인을 잡는 두더지 게임 등 재미 요소를 더한 캠페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날에는 총 7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위험성평가 인증 챌린지도 주목할 만하다. 건강습관 애플리케이션 챌린저스에서 각 가정과 기업 등에서 안전을 셀프 체크하는 위험성평가 인증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세대에 아우르는 안전문화 확산을 시도한 것이다.

서울지역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다수에게 캠페인을 노출해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서울지역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발로 뛰는 안전캠페인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재해

43.5%

2023년 서울지역 조사대상,
22건 중 10건(43.5%)

이륜차 사고사망자

14명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지역 이륜차 사고사망자 (산재보험적용대상) 14명
*이 중 11명(78.5%)이 2022년에 발생하였다.

서울지역 안실단의 디자인 제작물 사례

서울지역 안실단은 생활 속에 스며드는 전략으로, 눈에 띄는 제작물을 제작해 인기가 많았다.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서울지역 안실단의 2023년 제작물을 소개한다.

빛을 받았을 때 반사되어 눈에 잘 띄는 이노라이트 재질로 만든 안전스티커 4,000개를 배포했다.

이동근로자를 위한 얼음물 지도를 제작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 줄이기를 알렸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스터 48개를 배부했다.

발로 뛰는 안전캠페인

생수나눔 캠페인

서울안전한마당 부스운영

Interview ● 서울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익숙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안전문화 메시지

이마트 안전 Chief파트너 **안정훈 부장**

"2023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죠. 무더운 여름 탓인지 사회적으로 고열질환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특별히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지원을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던 만큼 온열환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고민이 많았던 안정훈 부장. 때마침 고용노동부서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실단 활동을 제안받게 되었다. 이마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매장 중 하나로서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걸맞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안실단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8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에는 생수매장을 통해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생수매장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열작업에 대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한 결과, 단 한 건의 고열질환 사고 없이 폭염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른 활동으로는 안전문화 홍보 스티커 제작 사례가 있다. 전국 매장 내 6만 5,000대 쇼핑카트 및 고객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쌀 포장지에 총 10만 장의 안전문화 홍보 스티커 부착해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 것. 또한 매장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형 TV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 동영상을 송출했다.

온라인 활동도 이어졌다. 이마트 홈페이지 내 안실단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게시하고 온라인 쇼핑 시 가정으로 배송되는 종이 쇼핑백에 안전문구를 삽입해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안정훈 부장은 이마트가 수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으로도 안정훈 부장은 지속적으로 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안실단'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고객에게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마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실단 활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안전이 일상이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원

강원도민과 함께 손잡고 안전을 나르다

강원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강원지역 안실단)은 강원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 포럼, 지역행사, 홍보물 배포, 현장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내재화와 안전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지키는 안전문화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안전홍보

임업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이다. 임업 사망사고는 주로 벌목을 하다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데,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업 분야 재해율은 1.02%로 광업(25.82%), 건설업(1.17%) 다음에 이른다. 전 산업 평균 재해율(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 0.57%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이렇기 때문에 강원지역 안실단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임업재해 예방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됐다. 이번 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테마로 강원도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동시에 열렸다. 강원지역 안실단 관할지역은 아니지만 강원동부지사의 협조 아래 벌목 작업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하며 안전보건자료 등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5년간 임업 재해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전국	재해자 수	928	915	1004	985	1018
	사망자 수	11	12	16	16	10
강원도	재해자 수	94	104	124	124	117
	사망자 수	5	3	2	3	1

세계 임업 EXPO

퀴즈를 통해 배우는 안전문화의식

강원지역 안실단은 임업관련 수구각, 벌목작업 규정을 알아보는 퀴즈, 위험요인 두더지 잡기, 안젤이 등신대 포토존 운영 등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임·벌목업 작업 시 규정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임업 종사자와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레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며, 임업분야의 안전문화 실천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힘을 더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작업 VR 체험장을 운영했다. 이는 벌목 작업 사고사례와 예방 대책을 VR로 보면서 체험하는 것으로 실감나는 콘텐츠로 임업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충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돌림판 퀴즈

1. 나무의 가슴높이(1.2m)에서의 지름이 얼마 이상일 때 수구각을 내야 할까?

❶ 10cm ❷ 20cm ❸ 30cm

2. 수구각은 몇 도 이상으로 내야 할까?

❶ 10° ❷ 20° ❸ 30°

3. 수구의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 )로 만들어야 한다. ( )에 들어갈 말은?

❶ 1/5 이상 1/4 이하 ❷ 1/4 이상 1/3 이하
❸ 1/3 이상 1/2 이하

4. 벌목작업 시 쓰러지는 나무의 위험에 대비하여 벌목할 나무로부터 벌목할 나무 높이의 ( ) 이내의 직선거리 안(반경)에서는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에 들어갈 말은?

❶ 1.5배 ❷ 2배 ❸ 2.5배

정답: ❷, ❸, ❷, ❷

다양한 곳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절대 잊지 않아야 할 '물, 그늘, 휴식'

2023년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고 보다 공격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지역 안실단은 7월 27일 춘천시에서 제일 큰 오일장인 풍물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문화 확산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안실단 소속 60여 명이 참석해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행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모 쓰기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 홍보물을 3,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보건' 활동

강원지역 안실단은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2023 춘천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춘천마라톤 대회는 1946년에 창설돼 매 대회마다 3~4만 명씩 출전하는 국제대회이다. 이번 마라톤에서 강원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슬로건을 주자 등에 부착하고 안전문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안전, 문화, 실천' 구호를 외치며 10km를 완주했다. 마라톤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실천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또 최근에는 춘천시내 시민버스에 '엄마, 아빠 안전하게 일하기로 약속해요', '청정 강원 청정 안전'이라는 홍보문구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인식을 확산하기도 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확산되다

'더워서, 귀찮아서, 설마 내가…' 하며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는 발생한다.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시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는 데서 안전사고 예방은 시작된다. 강원지역 안실단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콘텐츠, 지역 축제 등을 십분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민들과 접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안전을 강조하고, 퀴즈, VR 콘텐츠, 게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안전수칙을 홍보하기도 했다.

강원지역 안실단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결국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모두의 노력이 모일 때 안전문화 의식 강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다양한 홍보활동 통해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춘천 마라톤 행사

춘천풍물시장 캠페인

태백·삼척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

태백·삼척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태백·삼척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7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태백시, 삼척시,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삼척쏠비치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에서 안전을 외치다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의 시작

태백·삼척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탄전 지대로 1960~1970년대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었다. 이 지역은 질 좋은 무연탄이 매장되어 일제강점기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탄광이 세워졌다.

채굴된 지하자원은 태백선과 영동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태백과 삼척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연료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줄기 시작했고 현재는 탄광 대부분이 사라졌다. 탄광업에 종사했던 지역 시민들은 서비스업, 건축업, 농림목축업, 제조업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석탄을 나르던 운탄고도 길은 관광객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태백·삼척지역은 석탄산업이 흥성하며 일찌감치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던 곳인 만큼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문화 슬로건이 새겨진 현수막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현장

장미축제

제27회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연계 캠페인

태백·삼척지역 안실단은 지난 8월 2일, 황지연못에서 열린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참가해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태백시 등의 인력으로 꾸려진 20여 명의 안실단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스를 운영하며 태백지역의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슬로건이 부착된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활약했다. 특히 행사가 여름에 열린 만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조치 방법이 기재된 리플릿도 배포해 시의성을 더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황지연못은 유동 인구가 많은 태백 시내 중심지로, 눈에 잘 띌 수 있는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삼척 장미축제 연계 캠페인

안전일터 조성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태백·삼척지역 안실단은 삼척시의 대표 축제인 장미축제에도 참가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린 삼척 장미축제에 안전문화 홍보 부스를 설치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등 공신은 안전을 지키는 바로 당신'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메시지를 전했다. 또 캐릭터로 디자인한 엽서를 제작해 홍보용품으로 사용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안전문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락과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도 배부해 안전의식을 다시금 일깨웠다.

지역축제에 배포한 리플릿 이미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질식재해예방 관련 리플릿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다양한 분야의 산업사고를 막기 위한 홍보자료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캐릭터가 새겨진 안전엽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위험성평가 체험교육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리적 한계를 이겨내다

태백·삼척지역에 안전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축제를 다니다 보면 이동이 쉽지 않다. 겹겹산을 따라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로 사정이 어렵지만 리플릿과 엽서 등의 휴대성이 좋은 홍보물을 활용해 지역의 가장 큰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태백·삼척지역의 시민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릉

KTX 강릉역사 랩핑광고 및 커피축제 연계 캠페인

강릉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강릉지역 안실단) 지난 3월 8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강릉시,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등의 17개 기관으로 꾸려진 강릉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실천과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지역, 제대로 파악하기

세계 관광도시에 도전하는 강릉

광고나 캠페인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정하는 일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확률도 높아질 터. 강릉은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매년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도시로 최종 가입이 승인되기도 했다. 자연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미식 자원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된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도시

이렇게 강릉이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도시로 꼽힐 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다. 시내에 KTX 강릉역이 있어 빠르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강릉지역 안실단는 이점을 고려해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기획했다. 먼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펼치고자 목표를 세워 KTX 강릉역에 랩핑광고를 결정했다. 또한, 지역 축제에도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전국 산림 기능인 안전 결의대회

KTX 강릉역 맞이방 출구에서 볼 수 있는 랩핑광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KTX 강릉역사 랩핑광고

강릉지역 안실단은 관내 물류와 관광 교통의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KTX 강릉역사 내 생활 접점매체를 활용한 안전보건 홍보를 전개하기 위해 랩핑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랩핑광고는 2023년 7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5개월간 KTX 강릉역 맞이방 출구 전면에 게재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메시지가 담겨있다. 강릉지역 안실단은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랩핑광고가 설치된
KTX 강릉역 이용객 추이

2020	181만 명
2021	194만 명
2022	256만 9,590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랩핑광고가 설치된 강릉역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강릉커피축제 캠페인

강릉은 커피거리가 유명한 만큼 매년 커피 축제가 개최된다. 강릉지역 안실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포호수공원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강릉커피축제(GCF)에 참여해 안전일터 조성 및 안전문화를 알리는 캠페인활동을 진행했다. 홍보부스 2개동을 확보하여 서비스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VR체험을 진행했다. VR체험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시민들의 참여도와 교육효과가 높았다. 또한 강릉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스에 와서 안전캐릭터와 사진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등신대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강릉커피축제에 참여한 모습

원주·횡성

기업, 군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원지역 원주·횡성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원주·횡성지역 안실단 발대식을 가졌다.

안전을 위해 맞잡은 손

지역 대표기업과 안전문화 확산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지역 대표기업이자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삼양식품(주) 원주공장, 롯데웰푸드(주) 파스퇴르공장, 해태가루비(주) 등과 안전문화 슬로건 확산 관련 협업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에 집중하였는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삼양식품에서는 별뽀빠이 과자 연 300만 개, 롯데웰푸드(주) 파스퇴르공장은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 연 300만 병, 해태가루비(주) 허니버터칩 연 48만 개의 포장박스에 안전메시지를 담아 생산하였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이 고취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이다.

이밖에도 사업장 내 현수막, 화장실, 식당, 카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 디자인을 배포해 안전의식 고취에 힘썼다.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 UP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2023년 8월 31일 삼양식품(주) 원주공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캠페인이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대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 일조했다.

제품포장 안전메시지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 디자인 배포

안전한 일터, 행복한 원주

군 안전이 곧 국민 안전

강원도는 전국에서 군부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기업은 물론, 군부대에서도 훈련 중 차사고, 압박 사고, 군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군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상기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함께 군부대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36사단 의무대 신축 공사현장을 비롯해, 51정보통신대대 수송부정비고 신축공사, 111정보통신대대 취사식당 증축공사 등 3개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특히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군부대 보안 특성상 평상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측 담당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군 안전문화에 애정을 가지고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면 안전 온도 UP! UP! UP!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지난 5월 안전 일터조성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7일에는 강원도자연학습원에 노·사·민·정 공동선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원주와 횡성 지역의 근로자, 사업주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펼친 안전문화 확산 홍보캠페인으로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민·정이 함께 캠페인 진행과 더불어 안전 점검의 날 현장점검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문화 의식을 내재화하는 데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곳곳에 안전문화 확산

원주·횡성지역 안실단은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 제품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는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주의의무 강조에서 벗어나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구에 감성을 더했다. 꾸준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활동은 물론, 지속적인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이 내재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평창·정선

정선아리랑제 축제 연계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

지난 3월 14일, 동강시스타에서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와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기관으로 꾸려진 영월·평창·정선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영월·평창·정선지역 안실단)의 발대식이 열렸다.

유서 깊은 역사가 흐르는 지역에서 안전을 외치다

탄전 도시에서 문화의 고장으로

영월과 정선은 태백·삼척 지역과 함께 과거 탄전 도시로 호황을 누렸던 지역이다. 특히 정선의 경우 한때 전국의 석탄 생산량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13만 명이 넘었던 정선의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급격히 줄게 되었고 결국 2011년 말 4만여 명 대로 감소했다. 이후 정선·영월의 드넓은 지역은 사람이 빠져 나가면서 다시 조용한 산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고, 최근에는 천혜의 경관자원과 역사의 흔적을 기리며 문화·관광도시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

영월군 남면에 위치한 남한강 상류에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청령포가 있는데 1457년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주민들은 슬픈 역사를 기리며 단종문화제를 열어 문화의 장으로 발돋움시켰다. 또 정선은 600여 년 전부터 전래되어온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구성진 가락을 따라 고향의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에 영월·평창·정선지역 안실단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 참가해 안전일터 조성과 실생활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종 문화제 캠페인 운영 부스

가고 싶은 정선, 안전한 정선

이목을 집중시킨 정선아리랑제 캠페인

영월·평창·정선지역 안실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열린 제48회 정선아리랑제에 참가하여 안전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먼저 '안전 앞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홍보 부스 전면에 게시하고 안전홍보용품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었다. 티슈와 119 스티커, 친환경 행주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물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물품에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구 등의 안전슬로건을 담았다. 또 중대재해 발생의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위험성평가 제도와 질식재해 예방, 인포그래픽로 한눈에 들어오는 산업재해 통계 자료, 지붕작업 및 임업 사고 관련 메시지 등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안전문화

정선아리랑제에서 전개한 안전문화 캠페인은 단순히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 외에 영월·평창·정선지역 안실단의 유관기관인 강원랜드의 협조를 얻어 남녀노소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들도 마련했다. 강원랜드 보건관리팀에서 나온 간호사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지식을 알려주었다. 또 홍보 부스에서는 VR기기를 이용해 가상현실 안전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실감나는 VR 안전체험은 안전문화에 대한 인지가 미숙한 아이들과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성인 모두에게 효과적인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고, 의료인이 직접 자세를 가르쳐 주면서 세부적인 지식까지 알려주는 심폐소생술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선아리랑제 캠페인 운영 부스

Part 2

부산권

부산지역은 밀집된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사업장까지 있어 다양한 사고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에 곳곳에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실천을 도모하는 안전의식 내면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48

부산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54

창원
가족의 안전을 응원하고,
내일의 안전을 기약하다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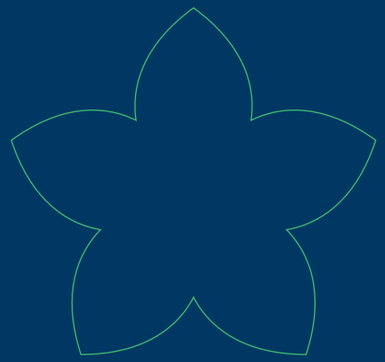
울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66

진주
생활 곳곳 꽃 피우는
안전문화

62

양산
안전슬로건 노출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통영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안전일터 만들기

70

53

우수사례 인터뷰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 최미리 주무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송대영 본부장

부산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부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부산지역 안실단)은 부산지역의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뜻을 가지고 지난 3월 8일 발대식에 출범했다. 부산지역 안실단은 민·관합동의 협의·진행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공공화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양하는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칙대로, 철저히 현장점검에 나서다

보다 조직적으로 철저히 움직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5위권 규모의 환적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조선업, 건설업 및 관광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부산지역 안실단은 조직을 1~5과로 분과해 총괄부터 제조, 건설, 서비스, 조선업 등을 각각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 관련 안전문화를 집요하게 연구하고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두루두루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철저한 움직임이 돋보인다.

부산지역 안실단은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등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 부산일보, KNN 등의 언론사, (주)동일고무벨트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총 39개사와 민관합동의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로 뛰는 안전캠페인

부산시청 앞 홍보 캠페인

발로 뛰는 현장점검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다

부산지역 안실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점검'이다. 각각의 사업 특성에 따라, 계절 특성에 따라, 규모에 따라 철저히 분과된 1~5과에서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월 4일 이뤄지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에는 여름철에 맞춰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집중하고, 겨울에는 동절기 관련 건강 정보라던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점검을 확인하고자 현장에 적극 방문하고 있다. 또한 패트롤 형태로 운영되는 '현장점검의 날'은 두 번째, 네 번째 주 수요일마다 1인 2조로 지속적인 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패트롤 현장점검이란, 3대 사고유형인 추락·끼임·부딪힘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위험 요인·기인물에 대한 핵심 점검사항 위주의 집중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안실단은 꾸준한 안전점검과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사업장 섭외는 부산지역 안실단의 분과별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간에 좋은 사례를 공유하며 계속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자체적으로 우수 안전사업장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이를 통해 각 사업장에 안전문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사항

추락	끼임	부딪힘
❶ 비계, ❷지붕, ❸사다리, ❹고소작업대(차), ❺철골 및 거푸집동바리	❻ 건설기계·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❼ 혼재작업, ❽ 충돌방지장치 등
필수확인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필수확인** 덮개 설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장치, 운전정지 등	**필수확인** 작업지휘자·신호수 배치 및 통제, 동선구획 등

안전보건공단은 3대(추락·끼임·부딪힘)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발로 뛰는 안전캠페인

사고 없는 일터, 행복도시 부산

두 발로 뛰며 만나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안전문화 확산은 대규모 사업장만을 위한 미션이 아니다. 개인의 일상에 녹아 들어야 메시지가 확산되고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안실단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제조 분야 사업장에 메시지를 확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인 안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뚜렷한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안전문화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부산은 영도 등에 오래된 수리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다. 이에 부산지역 안실단은 직접 이곳을 자주 방문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유의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사직 야구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이라 불리는 사직 야구장은 부산 시민에게 있어 가장 익숙한 랜드마크 중 하나다. 부산지역 안실단은 이곳에 모이는 3만 명의 관중을 대상으로 개인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메시지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부산지역 안실단은 사직 야구장을 찾아 부산시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프로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프로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물·그늘(바람)·휴식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물티슈와 부채를 나눠주었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안실단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 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예방 차원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 홍보자료 교육 등을 통해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 안전일터 조성의 날

Interview 부산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임해 얻은 만족스러운 결과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
최미리 주무관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부산시가 안실단과 함께하며,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신평공단 등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 산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안전보건공단 대표 캐릭터 '안젤이'와 부산광역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16종)을 제작하고, 2만 5,000명의 시민에게 배포해 안전문화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모했다.

"부산지방고용청, 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재해예방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모티콘을 만드는 과정에도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상호 캐릭터의 역할과 내용 구성의 협의 과정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2만 5,000명 분량의 이모티콘이 15분 만에 배포 완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미리 주무관은 앞으로도 부산지역 안실단과 함께 다양한 부산시 홍보 자원을 활용해 각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안전은 최우선의 경영목표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송대영 본부장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사내의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안실단이 발족한 3월부터 다채로운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송대영 부장은 사내에 '안전은 권리다',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안전문화가 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안실단과 함께 경마일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기본에 충실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시행을 통한 경마 현장 주요 시설 순회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하겠다는 전사적 분위기 형성에 집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급업체 및 경마 현장 관계자들을 위해 안전 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앞으로도 부산지역 안실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 확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원

가족의 안전을 응원하고, 내일의 안전을 기약하다

창원은 울산, 부산, 사천을 연결하는 동남임해 중화학공업지역 내의 대규모 기계공업 단지로 경남 중부지역 산업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창원지역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경상남도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지역 언론사,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고도화하고 더 안전한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활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퇴근 후 소주 한잔, 안전문구와 함께

창원지역 안실단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일상 속 생활용품에 안전메시지가 담긴다면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에 안전의식을 전파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창원지역은 공업단지가 많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인구가 많다. 이런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퇴근 후 소주 한 잔할 때 그 소주병에 안전문구가 있다면 조금 더 전파력이 높지 않을까 싶었다. 또 소주는 마트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곳곳에 진열되어 있으니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노출되기 쉬웠다. 경남지역 향토기업 (주)무학에서 만드는 소주 '좋은데이'는 경남 지역 대표 소주로 지역 내 소비 점유율이 높은 제품이다. 창원지역 안실단은 '좋은데이' 소주의 보조라벨에 안전메시지를 게재한다면 창원시민과 근로자들의 생활 공간까지 안전보건 메시지를 폭넓게 전파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

창원지역 안실단은 생활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관련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주)무학과 '좋은데이' 홍보라벨을 활용해 안전문화 노출 등 협업체계 구축 사항을 논의, 2023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했다. (주)무학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결과였다.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점으로 보조라벨에 안전메시지를 담은 '좋은데이' 소주가 200만 병 이상 생산됐다. 창원지역 안실단은 (주)무학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창원지역 안실단이 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다음으로 손을 맞잡은 기업은 하이트진로(주)였다. 하이트진로(주)의 대표 상품인 '참이슬 fresh' 보조라벨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을 담아 경남지역에 약 100만 병을 유통했다.

'좋은데이'와 '참이슬 fresh' 도합 약 300만 병의 소주 라벨에 안전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경남지역 인구 약 325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창원지역 안실단은 두 기업과의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경남지역 기업들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한다면 지역 내 사고사망재해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데이' 소주의 보조라벨에 안전메시지 게재

부모도 자녀도 서로의 안전을 걱정한다

고사리 손으로 쓴 안전편지

창원지역 안실단은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초등 2학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편지 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초등 2학년 아이가 가족에게 안전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가정에서의 안전의식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창원 시내 초등학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안전 편지지를 나눠줬다. 학생들은 가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당부하는 안전편지를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였고, 이 안전편지를 전달하면서 학부모 안내용으로 '감동 안전편지 응모전' 참여 안내문을 함께 전달했다. 학생이 쓴 안전편지를 받고 안전에 대한 울림을 느낀 가족들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이 쓴 안전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동 안전편지 응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다. 2023년 9월 15부터 10월 13일까지 응모한 안전편지 중 안전문화상 15명, 안전감동상 15명 총 30명을 선정해 상장과 모바일상품권 3만 원권을 시상했다.

산업 안전의 시작은 교육이다

창원지역 안실단은 산업재해 예방의 A부터 Z가 있다고 한다면 시작인 A는 안전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에서 생활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은 아직 미비하고 사실상 그 필요성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현장 등 사회의 각층으로 나아갈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활 안전만큼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창원지역은 공업 도시다 보니 기계나 전기 화학 등의 산업안전이 절실한 현장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창원지역 안실단은 안전편지 쓰기와 응모전 캠페인을 통해 어린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 부모님의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를 많은 가정에 전달하고자 했다.

아이의 안전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깊은 감동과 함께 안전을 다짐하며 자기예방 규율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아이는 안전문화, 안전의식이란 무엇인지 접하는 계기가 된 행사였다. 앞으로도 창원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를 다각도로 알리고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는 데 창원지역 안실단이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2023 감동 안전편지 응모전 수상자

안전문화상
15명

안전감동상
15명

울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지난 3월 9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 노·사단체, 안전보건협의체, 언론사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울산지역 안실단을 꾸려 발대식을 개최했다. 울산지역 안실단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풍토의 획기적 전환과 산업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TBM 광고

안전메시지가 부착된 차량

생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우리나라 산업 수도, 울산

항구를 건설하기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6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한 도시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누적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울산의 산업단지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효성, 대한유화, 고려아연 등 국내외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입주해 지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진 만큼 자발적 안전문화의 정착이 중요한 과업으로 떠올랐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다

울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산업재해 발생률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풍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나 울산항에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의 시각 홍보물을 이용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규정 준수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을 실시해 울산만의 특화된 안전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메시지가 부착된 우체국 택배 차량

자발적 공유를 통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 개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작업 전에 안전점검회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는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내용과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또 최근 작업장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작업절차에 대해 복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작업자가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울산지역 안실단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중요도를 고려,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했다.

안전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공모전

지난 5월 진행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은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울산방송(UBC)을 주관사로 선정해 영상제작 및 편집 등의 전문성과 홍보효과를 높였다. 공모 일정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를 받아 6월 7일 1차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심사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업예방지도과 과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분야별 안전보건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해 20점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투표를 진행, 서면심사 점수를 더해 7월 2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수상한 작품들은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며 위험요인들을 파악, 어떤 내용들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영상으로 담아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평을 얻었다.

숫자로 보는 TBM 우수사례 공모전

113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 건수

510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의 유튜브 '좋아요' 수(23년 11월 14일 기준)

20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수

370만 원
공모전 총 시상금액(온누리상품권)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

난관을 극복하고 얻은 결실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기업들의 참여도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됐지만 공모 기간을 처음 기획보다 2주 정도 연장하면서 사업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마다 공모전을 알리고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공모전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울산방송(UBC)을 주관사로 선정해 방송 프라임 타임에 광고를 삽입하며 최대한 미디어를 활용해 참여도를 높였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우수사례 영상물 공모전'은 무사히 마쳤고, 이때 선정된 작품들은 여러 기업들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산재예방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안전도시 '울산'

울산지역 안실단은 공모전이나 캠페인을 통해 산업현장에 안전메시지를 전파하고 나아가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생활 밀착 홍보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울산대공원내 어린이교통안전공원에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안전체험 행사를 가졌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 통근 및 사내 버스와 울산우체국 택배 차량 외벽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부착하고 우체국 소포상자와 롤테이프에 홍보 문구를 표기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양산

안전슬로건 노출을 통한 안전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경남본부 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관할구역 지자체와 민간기관, 지역별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노·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동부 양산지역 안실단 발대식(이하 양산지역 안실단)을 개최했다.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 발대식을 시작으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 로그인, 위험 로그아웃

근로자 주요 동선 밀착 홍보

양산지역 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역의 관할 구역인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3곳은 주로 제조현장이 많아 제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다. 2023년 상반기에만 경남지역 전체 사망사고 중 34.8%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8건 발생했다. 이에 안실단은 사업장 규모를 떠나 지역 내 사업장이라면 관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산재판넬 순환 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넥센타이어(주) 양산공장, (주)성우하이텍, 양산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했으며, 2주씩 진행되는 전시 일정이 연말까지 확정이 되어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주요 동선에 통근버스 랩핑, X배너,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전슬로건을 노출하는 등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접근성 높인 온라인 무료교육과정

양산지역 안실단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온라인 무료교육과정을 개설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보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터 구성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분석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개발된 교육이다. 특히, 사업주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과 근로자를 위한 산재취약계층 교육을 각각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전슬로건 노출 우수사례, 판넬 전시 사업장 및 안전보건 교육

안전슬로건 노출

국적불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

모두 다 어울리는 안전문화

양산지역 안실단은 지난 10월 29일 '김해 다(多)어울림 축제'에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식 개선과 더불어 양산·김해지역 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한 것이다. 김해 다(多)어울림 축제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외국인 주민 축제로 2023년 11회째를 맞은 행사였다.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등 10개국 출신 김해주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양산지역 안실단은 '찾아가는 VR체험지원' 부스를 만들어 운영,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현수막 게시, 안전스티커 부착한 기념품 배포 등을 진행했다. VR 콘텐츠를 활용해 실감나는 산업재해를 경험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도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안전점검, 안전문화 확산

매월 4일에 진행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양산지역 안실단은 이를 확대해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홍보를 병행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확인과 재해다발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점검을 민·관과 노·사가 함께 실시했으며, '안전 앞 우리는 하나'라는 안전슬로건이 부착된 기념품 배포 등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사고 없는 일터, 행복한 일터

산업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종 유사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려워 양산지역 안실단은 다양한 지역 축제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거나 안전보건공단 교육 프로그램이나, 근로자 밀접지역 캠페인을 펼치며 올바른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양산지역 안실단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해 다어울림 축제(외국인 주민축제)

김해 맑은물 센터 현수막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내

진주

생활 곳곳 꽃 피우는 안전문화

진주시는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시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찾아왔다. 진주지역 안실단은 민·관합동 협의 집행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진행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고도화하고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택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전 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오늘도 안전, 하셨나요

진주지역 안실단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살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승강기의 미디어보드, 입주세대의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단지 내 현수막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노출했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생활 동선에 맞춤한 체계적인 캠페인으로 안전문화 분위기를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었다.

주택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전 국민 안전문화노출 캠페인은 2023년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시작됐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맡은 기관이며, 진주지역 안실단의 일원이기도 했다. 진주지역 안실단은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전국 309개 공공주택 4,260대의 승강기 미디어보드에 모션 그래픽을 송출했다. 진주지역 안실단은 20~30초 정도 길이의 모션 그래픽을 승강기 미디어에 송출함으로써 오늘도 안전하게 일을 해야 즐거운 퇴근길이 될 수 있고, 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아파트 구성원 대다수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탑승하는 승강기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노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했다. 그래서 진주지역에 국한한 캠페인이 아니라 전국 25만 6,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시행함으로써 말 그대로 대국민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승강기에도 고지서에도 빠짐없이

진주지역 안실단은 승강기 미디어보드와 더불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에도 안전문화 슬로건을 인쇄해 배부했다.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가 25만 6,000여 세대에 월 2회 배부되면서 하나의 안전문화 슬로건을 51만 2,000여 회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안전문화 슬로건은 6종 중 매월 선별하여 표출했는데 '엄마, 아빠! 안전하게 일하기로 약속해요?' '안전하게, 안전으로 가족을 지켜주세요!'처럼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주 대상층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공동주택에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배달 근로자를 위해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배송을 응원합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게재했다. 진주지역 안실단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 캠페인 소재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갔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25만 6,000여 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에 실린 안전문화 슬로건 6종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BNK경남은행과 함께한 안전문화 캠페인

진주지역 안실단은 BNK경남은행과 협업하여 전국 BNK경남은행 자동화기기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과 참여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국 BNK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의 모니터에 안전문화 모션 그래픽 영상을 송출한 것이다. 이 안전문화 모션그래픽은 BNK경남은행 전국 영업점 155개소, 자동화기기 388기, 자동화 코너 509기, 총합 897기 화면에서 일 240회 이상 노출됐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자동화기기에서 3~4분 간격으로 나타나는 이 영상은 산업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들이 감성 이미지로 제공되어 자동화기기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대표 기업들이 사내외 안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중심의 안전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진주지역 안실단은 지역 내 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었다.

자연스레 일상에 스미는 안전문화

진주지역 안실단이 BNK경남은행과 함께한 안전문화 캠페인은 사소하고 우연한 기회에 시작할 수 있었다. 안실단 모션그래픽이 막 제작됐을 때라 어디에 송출할지에 대한 회의를 한 날이었다. 진주지역 안실단 담당자들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은행 자동화코너에 잠깐 들렀는데, 자동화기기에 달린 화면을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곧바로 BNK경남은행에 연락했고 다행히 반응이 호의적이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에서 전국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진주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의식 수준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 많이 노출돼야 한다는 말처럼 안전문화 의식을 바꾸려면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출근하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생활비를 뽑으러 들른 은행에서,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안전메시지가 서서히 국민의 의식에 내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정착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진주지역 안실단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BNK경남은행과 함께한 안전문화 캠페인

155개소
BNK경남은행 전국 영업점

897기
모션 그래픽 송출 자동화기기

240회 이상
1기당 하루 노출 횟수

통영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안전일터 만들기

통영지역은 조선소와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소규모 현장에서의 끼임, 추락, 충돌 등 재래형 재해가 빈번한 지역이다. 통영지역 안실단은 사고사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민·관합동 협의 집행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고도화하고 널리 확산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막아라

기업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통영지역 안실단은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거제시, 고성군, 한국남동발전, (주)삼천포발전본부, 한화오션, 거제·통영안전관리자협의회, 한국안전연구원(주), 대우의료재단, 경남조선업안전보건협의회 등 안실단 구성원 105명이 모여 거제시 삼성중공업 내에서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삼성중공업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작업장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사업장 내 주요 교차로에서 원청 및 협력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문구가 담긴 마중물과 물티슈, 치약솔, 그립톡, 스티커 등을 배포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중 안전의식 문화 확산이 강조됨에 따라 캠페인과 함께 현장 가공 조립공장, 선장 UNIT장, 3도크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다.

지역 산업에 맞춤하는 프로그램

정부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따라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2023년도 기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3년도 통영지역 안실단 관내 기업인 한화오션은 1,500여 명, 삼성중공업은 1,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했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224만 5,000명 중 취업자는 84만 3,000명이며, 이 중 산재 취약 계층인 단순 기능 인력은 28만 1,000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 및 사망자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평균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통영지역 안실단은 관내 산업현장과 산업재해 현황을 살피며 통영, 거제, 고성 지역에 맞춤형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사망재해 예방 방안이 절실함을 느꼈다. 거제시는 인구의 60%가 종사할 정도로 조선업의 규모가 크고, 외국인 근로자 수도 조선업에 집중돼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문제, 안전보건 교육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고사망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통영지역 안실단은 생소한 작업환경과 언어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원어민 안전교육 강사 및 통역요원을 양성키로 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안전하기 위해

원어민 안전교육 강사 및 통역요원 양성

통영지역 안실단은 현장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어 능통 내국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안전보건 강사 자격과정은 경남의 조선업 사업장 소속 원어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 강의 능력 향상 교육 등 3박 4일간 총 34시간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 과정을 이수한 12명의 원어민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안전교육 강사 통역요원 양성 과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시 통역을 지원하는 통역요원 양성 프로그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는 여러 기술 분야의 종합적 지식과 용어로 이루어져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갖춘 통역요원의 양성이 필요했다.

1박 2일간 13시간의 심화 과정을 이수한 10명의 통역요원은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았고, 지역 내 조선업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 시 통역업무를 지원했다. 통역업무 지원 시 경남도청에서 수당이 지급돼 도내 거주 이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거제시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2023.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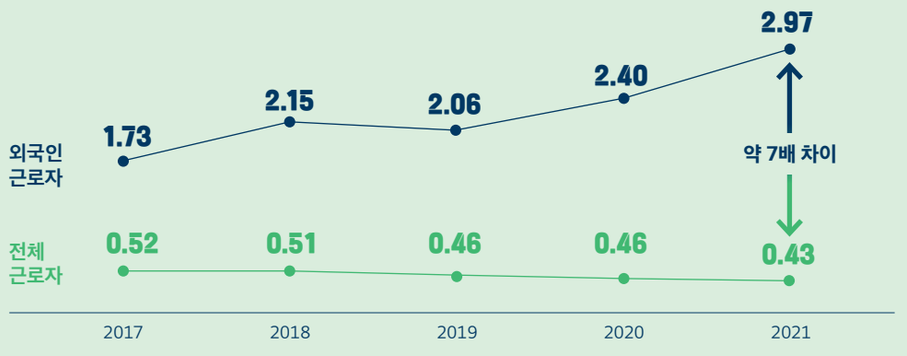
구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한국계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계	1,407	663	542	476	366	365	299	289	285	201
남	965	610	522	456	132	186	299	287	74	149
여	442	53	20	20	234	179	0	2	211	52

내일도 안전은 계속된다

원어민 안전보건 강사 및 통역요원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장도 효율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간 통합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영지역 안실단은 효율성 검토과정을 거쳐 2024년에는 경남 관내 대형블록 제조 사업장 16개소, 소형 선박건조 및 수리사업장 21개소로 운영을 확대하고 향후 조선업 외 건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지원센터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면 그동안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산업현장 곳곳에 주의 문구가 붙어 있어도 그 문구의 뜻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모국어로 안전을 강의해주는 든든한 동료이자 강사가 생겼다. 통영 안실단의 끈기 있는 노력이 그들의 불안을 안전으로 바꾸고 함께 안전한 일터로 나아가게 했다.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단위: ‰



Part 3

대구권

대구권 안실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 및 지역 내 타기관과 협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70

대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6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80

구미
민·관이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의 닻을 올리다

84

영주
안전문화 확산 제 일처럼,
제일처럼

안동
경북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안전공감대

88

75

우수사례 인터뷰
대성에너지 SHE팀 이재원 팀장

대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대구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대구지역 안실단)은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20개 이상의 기관과 함께 대구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안실단은 대구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민의 체감도 높은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시민에 좀 더 가까이

생애주기에 맞춘 안전의식 확대

대구지역 안실단은 지난 4월 26일 명곡체육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캠프'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관내 어린이 및 교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가치를 내재화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안실단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 보호구' 착용법에 대해 알려준 다음, 실제로 안젤이 보호구 입히기 놀이, 안전모 착용 체험 등을 통해 보호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 '해와 달'을 각색한 시청각물 상영을 통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현장실습생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파워풀 대구, 안전한 대구

대구지역 안실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 및 지역 내 타 기관과 협업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과거 대구 1호선 상인역 가스 폭발,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각종 사고와 재해, 재난 등 안전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하다고 알려진 동성로에서 가두 행진을 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연계 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안전 앞 우리는 하나'라는 현수막을 들고 590m에 달하는 가두 행진을 펼쳤으며 이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안실단' 홍보부스를 통해 안실단을 소개하고, 작업 안전, 생활 안전자료를 제공하는 등 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앞장섰다. 이 외에 두류공원치맥 페스티벌, 비슬산 휴양림 일대에서는 지역축제 연계 안전캠페인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어져 있던 지역축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실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가두 행진

두류공원치맥페스티벌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현장 점검, 안전의 마중물

국내 대규모 섬유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대구서부 지역은 대구 제조업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 대구지역 안실단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장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매달 다른 콘셉트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펼치고, 제조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사업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네거리에서 사업장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안전에 대한 열의로,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더했다. 참여 인원 모두 어깨띠 착용과 현수막을 이용해 안전메시지를 게시하고, 지나가는 근로자 및 시민에게 마중물을 직접 나눠주는 등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같이'의 가치 실현

대구지역 안실단은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문화 확산에 신경 쓰고 있다. 단순히 안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차원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툴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afety First

대구지역 안실단은 대구지역 이륜차 산재예방에 기여하고자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배달종사자가 밀집하는 도심에서 지자체 및 안전유관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대구지역 배달 특고근로자 안전 인식개선 및 산재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륜차 배달근로자 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해 ▲과속금지, ▲안전보호구 착용 핵심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캠페인 물품(안전원팀 물티슈, 이륜차 재해예방 OPS, 쿨키트), 라이더안전키트(무릎·팔꿈치 보호대, 충돌방지 스티커 등)를 배포하고, 이륜차 운전자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계도 활동, 이륜차 운전자 안전운행 서약서 교부 및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대구지역 안실단은 이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대구지역 2023년 산재사고사망 감소 목표(3명 이상)를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동대구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역내 가스 사용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참여와 협력 중심의 노·사 공동 현장 점검 및 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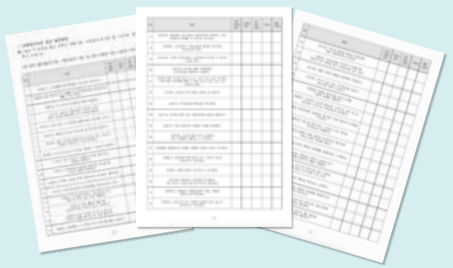
안전의 모범이 되는 대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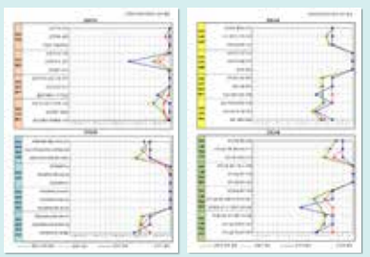
대구지역 안실단은 시민대상,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매진하였다. 2023년은 안실단 활동 원년이고, 대구지역 특성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눈높이에 맞춰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홍보활동을 펼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안전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의 모범이 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 더 가까이에서 안전을 알리고, 자연스레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대구역 현장점검

배달종사자 안전캠페인

안전의식수준 진단 설문 항목 및 설문 결과


설문 항목


설문 결과

대구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사진

재해예방 캠페인 물품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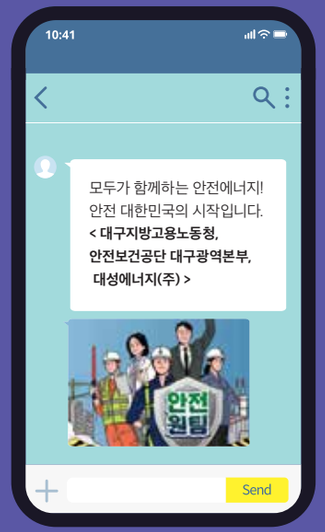
Interview ● 대구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대구경북지역 안전 이상無!

대성에너지 SHE팀 **이재원 팀장**

대성에너지는 대구광역시를 거점으로 경북 경산시, 고령시, 칠곡 일부까지 120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대성에너지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며 회사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까지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찰나 대구광역본부 안실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성에너지는 2022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120만 가구, 200만 명 이상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행되는 청구서와 청구 봉투에 안전문화 캠페인 문구와 이미지를 인쇄하면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2023년 8월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환경을 전담하는 주무부서인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팀을 통해 자체적으로 꾸준히 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가스 안전문화 캠페인'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동대구역사 내 대합실 및 외부에서 약 39명이 참여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7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대구·경산·고령지역 105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및 90여 대의 시설 순찰·점검 차량에 안전문화 홍보메시지를 부착해 전달할 계획이다.

안실단 활동의 가장 큰 변화로 대성에너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근로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안실단 활동에 참여하고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많은 정보와 교류로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성에너지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본다.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경북동부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에 경북동부 포항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포항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실단 활동을 통해 포항, 경주 등 경북동부지역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을 심다, 안전을 꽃피우다' 식목행사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식목행사 추진

함께하는 홍보, 피어나는 안전

포항지역 안실단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포항은 지난 몇 년간 태풍(힌남노)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지역 내 공포심과 상처가 깊은 곳이다. 이에 포항지역 안실단은 상처 극복을 위해 안전 도시를 강조하는 식목행사로 이번 캠페인의 컨셉을 잡았다. 식목일에 포항시장, 안실단 단원 그리고 2,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 나무를 심고 안전구역을 확보하며 안전의식을 다졌다. 행사 진행 중에는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등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문구를 수시로 노출시켜 안전문구가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문화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실단의 섬세한 노력이 빛나는 부분이었다.

추억으로 남기는 안전문화

포항지역 안실단은 식목행사와 함께 안전문화 홍보 이벤트도 진행했다. 포항시에서 무상으로 부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덕분에 두 개의 부스로 보다 쾌적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에코백, 텀블러, 주방세제 등 다양한 상품과 함께 룰렛돌리기 이벤트를 준비해 지역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안전문화 행사의 성격이 이벤트의 오락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 관련 현수막, 피켓, 어깨띠, 홍보물 등의 콘텐츠도 고루 준비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제고했다.

지역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퀴즈대회 추진

안전 앞에 하나된 우리가 바로 원팀입니다

지난 7월, 포항지역 안실단은 포항종합운동장 내 포항체육관에서 4대 철강업체(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와 함께 서바이벌 형식의 안전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유명 퀴즈쇼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의 형식을 본따 '도전! 안전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명을 정했고, 행사의 메인 슬로건인 '안전 앞에 하나된 우리가 바로 원팀입니다'는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 주도적 참여 중심 방식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정했다. 즐거운 축제의 장이었지만 이번 행사의 본질은 산업재해 예방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 행사 식순 중에는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퀴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감동

이번 안전퀴즈대회는 출제부터 진행까지 모두 포항지역 안실단이 참여하여 준비했다. 참가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안전지식 문제와 난이도 조절을 위한 고난도 문제 등을 적절히 배치해 균형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출제된 모든 문제를 다 맞힌 참가자도 있었다.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뭉클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현장은 훈훈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도전! 안전골든벨 행사 현장

나도 도전! 안전 골든벨

지역민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항 안실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출제한 문제를 소개한다.

<안전 분야>

O/X

Q1.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경사는 40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O / X)

Q2. 지게차 취급 작업 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이 해당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O / X)

객관식

Q3.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850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로 옳은 것은?

❶ 1명 이상 ❷ 2명 이상 ❸ 3명 이상 ❹ 4명 이상

주관식

Q4.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 ), ( )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보건 분야>

O/X

Q1.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 X)

Q2.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X)

객관식

Q3. 서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의하면, 폭염특보 중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 )℃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 )℃이상인 상태가 ( )일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작성한 보기 중 옳은 것은?

❶ 31, 33, 2 ❷ 31, 33, 5 ❸ 33, 35, 2
❹ 33, 35, 5

주관식

Q4.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굳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 안전 분야: Q1. X / Q2. O / Q3. ② / Q4. 구리 - 보건 분야: Q1. O / Q2. X / Q3.③ / Q4. 가열응착

구미

민·관이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의 닻을 올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구미·김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의 민·관 안전주체들로 이루어진 구미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4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자 나섰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안전문화 토론회, 지역축제 연계행사 등 지역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심는 안전 씨앗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성 배려

경북본부 구미·김천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분양으로 공장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농업토목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도 늘어나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5개소)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 중심으로 관내 제조업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구미지역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안전문화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기존의 안전문화 캠페인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 및 위험 사항 등을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2023 안전한국훈련 화재지진 안전교육 및 캠페인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알고 계신가요?

매월 4일 '안전일터 조성의 날'로 사업주, 중간관리자, 근로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사 합동의 참여와 협력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일터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하고자 한다.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실시하는 이유는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활동 예시

❶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중점 점검
❷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하여 작업 내용과 위험요인을 재확인
❸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❹ 캠페인 및 각종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활동 추진
❺ 노·사 공동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일터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등

퀴즈는 재미있게, 일상은 안전하게!

구미지역 안실단은 지난 6월 17일 경북서부지역의 청소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인 '2023 All Dream Festival'에서 '안전골든벨'을 개최했다.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민하던 구미지역 안실단은 지역 언론사인 경북중부신문과 협업해 지역 축제에 참여했다. '안전골든벨'은 국내 산업재해 현황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등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했다. 최후의 30인을 가리는 문제에서는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슬로건 중 하나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안전!"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지역 주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행사 전에는 안전문화 홍보 부스에서 어깨띠, 현수막 등을 활용해 안전메시지를 전파했으며, 행사 후에는 안전메시지 부착 상품을 수여해 행사 참여의 완성도를 높였다.

'안전골든벨' 행사

우리도 울려보자!
'안전골든벨' OX 퀴즈

Q.1

산업재해는 중상, 사망과 같은 큰 사고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며, 타박상, 넘어짐과 같은 경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타박상, 넘어짐 또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Q.2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다.

정답: X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Q.3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산업재해 미발생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

다국민의 안전문화를 위한 노력

가상 체험으로 생생하게, 현실은 안전하게

구미지역 안실단은 지난 10월 15일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3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VR 체험존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는 경상북도·구미시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가 개최하는 축제로, 유관기관과 외국인 근로자, 시민 등 15개국 약 1,000명이 참가했다. 구미지역 안실단은 산재 취약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노·사 홍보 물품을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VR 체험으로 가상의 산업재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지역 안실단은 구미시와 외국인근로지원단체 등 협업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및 외국어 자료 배포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새로움 UP, 안전의식 UP

하지만 구미지역 안실단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협업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언론사 협업으로 약 500명 규모의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안전골든벨' 행사 참가자 500명 중 대다수가 예비 산업인력 학생들로, 퀴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전지식을 습득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할 만한 결과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안전지식을 여러 사람과의 반응을 살피고 난이도를 조절했던 구미지역 안실단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안전골든벨'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동시에 지역 축제라는 큰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안전문화를 알리며 안전문화 홍보 효과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만들었다.

경북본부 구미·김천 지역은 제조업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자료를 준비했으며, VR체험을 통해 조금 더 생생한 안전문화 체험의 기회를 만들었다. 구미지역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역 언론사,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문화 홍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

안전문화 확산
제 일처럼, 제일처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등 경상북도 지역의 민·관 안전주체들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자 나섰다. 영주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7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의 산업 특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역 사랑으로 이어가는 안전 사랑

아는 만큼 안전하게, 안전한 만큼 행복하게

경북지역의 산림 면적은 전국 산림 면적의 21.8%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영주는 임업의 비율이 높고, 해마다 1.2명 수준의 임업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임업 관련 사고사망자는 14명으로 연평균 1.2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은 사고사망자가 10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한다. 특히 산림청의 탄소중립 산림 부분 추진전략의 일환인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 교체 등으로 벌목작업 증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또한 임업현장은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처럼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이에 영주지역 안실단은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 산림산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목 작업 주요 재해 사례

맞음
-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 또는 걸려있는 나무에 맞음
- 걸린 벌도목을 받치고 있던 나무를 벌목 중, 벌도목이 떨어져 맞음
- 벌목 또는 조재 중 나뭇가지 등에 맞거나 집재 중 굴러온 나무에 맞음

깔림
- 벌목 중 굴러온 나무에 깔림

베임, 짤림
- 기계톱 튕김(kick back) 현상에 의해 베임, 찔림

넘어짐
- 나무, 돌 등에 걸려 넘어짐
- 경사지, 비, 눈 등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짐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시 안전수칙

❶ 벤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결정하고, 미리 적절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확보
❷ 벌목 전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넝쿨, 뿌리, 잔가지, 잡초 등) 미리 제거
❸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
- 수구 상면·하면의 각도를 30° 이상으로 하며,
- 수구의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만들어야 함

* 수구(face)란? 벌목 시 나무가 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

소백산 마라톤 대회

행사 특성에 맞춘 안전슬로건으로, 더 가깝게!

영주지역 안실단은 지난 4월 2일 지역 행사인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경북본부 등에서 참여해 마라톤 대회와 홍보 부스가 더욱 풍성해졌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슬로건을 만든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슬로건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영주지역 안실단은 기존의 안전문화 슬로건이 아닌 행사 특성에 맞는 슬로건을 직접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안전한 완주를 기원합니다! 함께하는 산재예방,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담아 제작한 스포츠 타월을 배포하며 안전메시지를 전파했다. 이외에도 안전문화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부스를 찾는 근로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며 안전으로 가득한 행사를 마무리했다.

다양한 안전문화 메시지가 만드는 안전 분위기

K-축제와 만난 K-안전문화

영주지역 안실단은 지난 10월 13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국내 유일의 모자 축제로, 복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모자'를 이용한 독특한 콘텐츠로 K-컬처 세계화·한류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주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슬로건 현수막, 홍보 물품, X배너, 어깨띠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준비해 안전문화 실천을 홍보했다. 개별 사업장에 가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소규모 인원만 만나게 되지만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문화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 지역을 향한 안전 사랑!

산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발달한다. 경북 영주지역은 산림이 많은 만큼 임업이 발달했다. 임업현장은 다른 산업현장과 다르게 정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임업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임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영주지역 안실단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그에 맞춰 꾸준히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임업현장의 안전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영주지역 안실단은 다양한 지역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해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외에도 지역 행사에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꾸준한 지역 행사 참여는 짧은 순간이라도 지역민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전지식을 공고히 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동시에 지역 축제라는 큰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안전문화을 알리며 안전문화 홍보 효과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만들었다. 영주지역 안실단은 2023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꼭 필요한 안전문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동

경북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안전공감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등 지자체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의 민·관 안전 주체들로 이루어진 안동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6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함께 만드는 안전공감대

지역민을 넘어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

안동지역 안실단은 각 지역의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인 경북도청과 협업해 도내 기초지자체에 안전문화를 전파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경북 도내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 633개소, 전광판 97개소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의 안전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안동에서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옥동 사거리 인근의 음식점 카페를 직접 찾아가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 스티커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범국가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축제와 같은 지역밀착형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안전 담당 공무원을 한자리에!

안동지역 안실단은 지난 6월 12일 '경상북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업무 담당 전문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지역에 안전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북도청 및 기초지자체와 협업으로 이루어진 본 교육은 경북지역 공무원 총 114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시·군의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교육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은 물론 교육의 효과도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 기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경상북도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해 안전메시지를 전파했으며, 행사 후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지식과 의식을 더욱 높이는 협업은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안전공감대 확산을 위한 안동지역 안실단의 노력

633개소
버스정보시스템(BIS)

97개소
전광판

경상북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안동지역 안실단의 센스 만점 안전문화 슬로건

음식점
'한국인은 밥심으로,
작업은 안심으로'

카페
'하루를 깨우는 커피, 안전을
깨우는 위험성평가'

친근하고 재미있게, 안전문화 더 가까이!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

안동지역 안실단은 지난 5월 17일 옥동사거리 등 시민의 주요 이동 동선을 따라 현수막 및 어깨띠를 활용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보고 또 보고 위험요인',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등 다양한 현수막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옥동사거리 인근의 음식점과 카페 등을 직접 찾아가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 스티커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음식점에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작업은 안심으로', 카페는 '하루를 깨우는 커피, 안전을 깨우는 위험성평가' 등 용도별로 알맞은 슬로건을 센스 있게 활용했다. 딱딱한 홍보 문구가 아닌 재미있고 친근한 홍보 문구의 스티커와 홍보물품을 받은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안동지역 안실단은 시민들 곁을 직접 찾아가 안전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안동상공회의소 상공인대회, 한국노총 안동지부 대의원대회 등을 방문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협업을 중심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문화를 곳곳에 알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초지자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산업안전 담당 공무원은 각 시·군별 1~2명 수준으로 사실상 개별 교육은 쉽지 않다. 또한 투입 인력과 시간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동지역 안실단은 소통 창구를 상위 기관인 경북도청으로 단일화해 협업을 실시했다. 협업을 통해 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교육과 홍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지자체 보유 매체를 활용해 도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안전메시지를 전파했다. 도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눈길이 닿는 곳에 안전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에 '안전'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겼다.

안동지역 안실단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친근하고 재미있는 안전문화 슬로건으로 홍보 물품을 제작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를 완성해 가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안동지역 안실단은 앞으로 시민 가까이에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범국민 안전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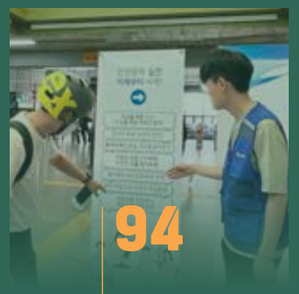
Part 4

중부권

인천과 경기권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안실단은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와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이 적힌
블록을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108
안양
우리 사는 안양,
실천하는 안전

112
안산
재해 없는 도시,
안전일터 안산



94
인천
안전 대한민국
인천에서부터

100
경기
지역 맞춤형 족집게
안전문화 홍보

116
의정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안전문화를 꽃 피우다

120
성남
지역의 안전문화
선도하는 초석

99
우수사례 인터뷰
대성에너지 SHE팀 이재원 팀장

104
부천·김포
감성안전을 위한
발걸음

124
평택
물류창고
산재 예방을 위해

128
고양·파주
예비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취업 컨설팅 추진

인천

'안전 대한민국 인천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인천지역 안실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업종별 협의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42개 기관이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개항 140년 역사를 맞아 안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인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각오로 산업단지와 항만과 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이 목표

출근길에 만나는 안전문화 캠페인

인천지역 안실단은 1호선 송내역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출근길 안전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마련되었는데 현장점검의 날이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문화 체계의 정착을 담당한다면 송내역 릴레이 캠페인은 안전문화 확산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캠페인을 진행했다. 송내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역으로 1일 평균 수송 인원 4만 9,949명(승차 2만 5,087명, 하차 2만 4,862명. KORAIL 2023년 10월 통계 기준)으로 1호선 역에서도 1일 수송 인원이 많은 역이다.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인천광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있으며 근방에는 산업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있다. 때문에 송내역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 근로자, 예비 산업 인력에까지 폭넓게 안전문화 캠페인을 노출하기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었다.

송내역 안전캠페인

가랑비에 옷 젖듯 생활 속에 스미는 안전문화

인천지역 안실단은 근로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내재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팀, 코레일 송내역장 등이 참여한 캠페인을 매달의 핵심 주제를 정하여 진행했다. 4, 5, 9, 10월에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 요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여름철인 6월과 8월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파했으며, 7월에는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캠페인을 진행했다.

출근 시간 현수막과 X배너, 피켓 등의 홍보물에는 다양한 안전문구와 함께 '안전 대한민국 인천에서부터'라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표출했다. 이 슬로건은 인천지역 안실단이 자체 지정한 문구로 안전문화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메시지를 인천 시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안전문화를 산업안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의 엄마, 아빠, 아들, 딸이기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전문화를 알리는 것이 일터에서의 안전만을 강조할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닿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인천항 항만 안전캠페인

인천공항 안전캠페인

바닷길에도 하늘길에도 안전문화를 알리다

인천항 항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인천지역 안실단은 2023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인천항 항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였다. 2023년 상·하반기 '인천항 항만 안전문화주간'을 맞이하여 항만 안전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활성화를 도모했다. 항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항운노동조합 등 50여 명이 모여 인천항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다발 요인인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피켓과 배너, 현수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인천지역 항만 산업에서는 지게차로 인한 끼임, 부딪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했다. 인천지역 안실단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개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항만에서 크레인, 지게차 등을 사용한 화물 하역 작업 시에는 설비별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인천국제공항 추석맞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2023년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9월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추세에 추석 명절까지 있어 공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달이었다. 따라서 인천지역 안실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관계자와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전개됐으며, 추석 연휴 전 성수기를 활용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항 내 입주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메시지가 담긴 홍보 물품을 배포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에는 평소보다 몸과 마음이 바빠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인천지역 안실단은 공항에서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맞이하길 기원하며 캠페인을 마쳤다. 또한 이 캠페인의 염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7월 2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이어졌다. 공항 홈페이지 및 SNS에 안전문구를 표출하고 공항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에도 안전문구를 지속적으로 띄웠다.

안전의식을 바꾸면 행동도 변화될 것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인천지역 안실단은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꾸준한 캠페인으로 이뤄내려 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던 시민들이 매월 출근길에 나타나는 그들에게 먼저 눈인사를 보내주었고, 그들이 나눠주는 부채와 구급 밴드, 물티슈에 적힌 안전문구를 한 번 더 새기며 발걸음을 옮겼다.

인천지역 안실단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시민들의 눈에 안전문구가 자주 들어오다 보면 한 번 더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도 변화하리라 믿는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듯 안전문화 캠페인이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하지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 가져올 변화가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지역 산업재해 현황 통계

기준년월	2022.09			2023.09			증감		
업종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사고 사망자 수
합계	**5440**	**77**	**39**	**6087**	**66**	**36**	**647**	**-11**	**-3**
제조업	1202	24	7	1246	15	6	44	-9	-1
건설업	1312	22	19	1476	19	16	164	-3	-3
기타사업	2926	31	13	3365	32	14	439	1	1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자료 (2023년 9월 기준)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41.6%

추락
지붕,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14.0%

끼임
방호장치, 점검수리 시
전원잠금 및 표지부착

9.8%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Interview ● 인천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커피 한잔의 여유, 안전을 생각하는 여유

동서식품 부평공장 산업안전보건팀 **허정식 팀장**

동서식품 부평공장의 안실단 활동은 2023년 5월 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했다.

"인천북부지청에서 시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동서식품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 포장재에 안전문구를 인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안실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식품 부평공장은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를 시작으로 외박스 포장재에 '커피 한잔의 여유, 안전을 생각하는 여유'라는 안전문구를 게재했다. 현재 동서식품에서 생산하는 총 640여 개 제품에 표시되고 있으며, 2024년 초까지 더 많은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제품 외박스에 표시한 안전문구는 공장 내 근로자와 공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보고 안전을 수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배너와 플래카드로도 제작하여 주요 장소에 게시했습니다."

동서식품 부평공장 정문에는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동서식품에서는 공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도 쓰여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중 '근로자와 경영자가 같이 참여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 평가하여 위험사항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고 개선한다'는 문구처럼 안전은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식품 안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하는 최우선 가치라는 회사의 철학을 동서식품 안전문화의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실단 활동의 가장 큰 변화로 동서식품 부평공장은 근로자들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을 꼽았다. 소수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노력만으로는 안전문화를 빠르게 확산하고 정착시키기는 어렵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인 근로자가 주체가 된 동서식품 부평공장의 안전문화 확산활동은 근로현장에 안전문화가 활짝 꽃피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경기

지역 맞춤형 촘촘게 안전문화 홍보

경기지역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용인·화성지역 안실단(이하 경기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9일 발대식을 마치고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향해!

산업백화점 경기도

경기에는 다양한 산업현장이 있다. 수원에는 서비스업, 평택과 화성에는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 여러 산업현장이 존재해 산업백화점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경기에는 건설현장이 밀집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추락사도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내 위험성평가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재보험 요율을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이 많은데 건설현장은 이런 혜택이 없다 보니 위험성평가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기지역 안실단은 2023년에는 중점적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 및 홍보해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했다.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릴레이 안전점검의 날

경기지역 안실단이 출범한 후 가장 먼저 기획한 활동은 '경기지청 관내 4대 협의체 릴레이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다. 지난 5월부터 화성·동탄·수원·용인 협의체 등 지역 협의체와 함께 지역 대표 사업장 네 곳의 현장을 방문, 현장에서 진행되는 위험성평가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X배너를 게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슬로건이 삽입된 쿨키트 및 안전문화 스티커를 배포했다.

이어 10월 한 달간 매주 하루를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운영했다. 이 행사를 통해 관내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위험성평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은 자체 운영 중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해 행사에 참석한 타 건설현장의 소장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다.

우수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 개최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만난 지역협의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더 많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를 원했으며, 경기지역 안실단 역시 관내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지난 6월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열었다.

경기지역 안실단은 관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461개소를 대상으로 경진대회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많은 건설현장이 각 현장에서 실행하는 위험성평가의 정착 노력을 위해 실시한 활동 사례를 보내주었고, 그중에서 6개 현장의 사례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 기준은 재해 감소 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현장 적용, 사례의 창의성, 타 건설현장 적용 가능 여부 등이다. 이렇게 통과한 6개 업체는 본선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다. 경기지역 안실단은 이들 업체의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461여 개 현장에 배포해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경기지청 관내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4명에서 5명으로 6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우수사례의 위험성평가 예시

1. 안전시설 개선 사례 [공통사항]

❶ 뿔우마 적용	❷ 달비계 전용 사다리	❸ 틈 없는 발판 적용	❹ LC문을 EV에 적용
배경	걸림돌	극복	정착
☑ 달비계 작업 시 난간 넘어 안착 시 불안전 행동 유발	☑ 영세업체로 투자기피 ☑ 기존 제작철물 무거움	☑ 원청사에서 전체 구매 ☑ AL사다리 고안하여 적용	☑ 종사장 만족도 높아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에 기여

AS-IS

TO-BE

안전문화 사행시 백일장 열어

경기지역 안실단은 근로자,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사행시 온라인 백일장을 진행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안전문화'로 사행시를 짓는 이벤트였으며, 안실단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온라인 채널 활용, 게시판 내 포스터 게시, 에버랜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951편이 응모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응모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 우수작 5편, 장려작 10편을 최종 선정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커피쿠폰을 증정하였다.

최우수작으로 '**안**전한 곳에서 함께 걷는 길! **전** 국민들이 꿈꾸는 세상! **문**화로 자리매김한 안전의 가치! **화**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요!'가 선정되었으며, 동절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핫팩 홍보물에 활용하여 배포하였다.

최우수작 선정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평상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안전문화 사행시로 표현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지역 안실단은 11월에는 '우리 현장, 우수활동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달릴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 있는 위험을 잡아라!

수원 화성문화제와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홍보 부스 운영

경기지역 안실단은 일반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도 앞장선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수원 화성문화제와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직접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경기지역 안실단과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협업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보통 안전보건하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주도해 행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번엔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협동해 체육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지역 안실단에서 운영한 축제 홍보 부스에서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3대 사고 유형(추락, 끼임, 부딪힘)이 부착된 두더지를 망치로 때리는 게임인 '위험이를 잡아라', 산업안전에 관한 노무 상담, 산업재해 VR 체험, 안전문화 슬로건이 삽입된 홍보물 배포 등 시민들에게 중대재해 감축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고 호응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홍보 부스 운영 1일당 500명 이상의 시민이 부스를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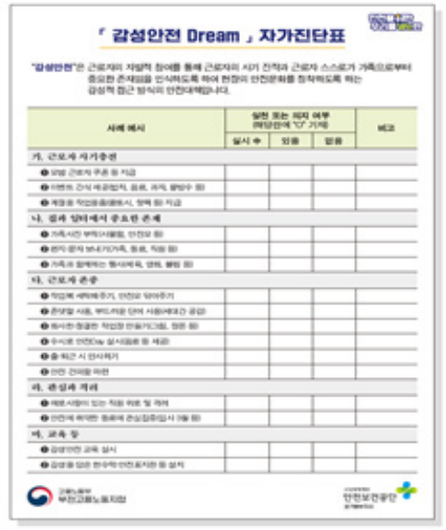
앞으로 경기지역 안실단은 지자체 또는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부천·김포

감성안전을 위한 발걸음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천·김포지역 안실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감성안전Dream 자가진단표

근로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앞당기는 감성안전Dream

부천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 경기중부지사는 2023년의 역점사업으로 '감성안전Dream'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감성을 움직여 자발적으로 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감성안전이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자 스스로가 가족으로부터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하도록 하는 감성적 접근 방식의 안전대책이다.

근로자 존중문화와 안전교육 확산

부천·김포지역에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소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2건이 발생하여 면서산업재해 예방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부천·김포지역 안실단은 감성안전Dream 확산과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감성안전Dream 자가진단표 내용을 배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작업자들의 가족사진을 부착하거나 편지·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을 통해 안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현장에서는 모범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이벤트 간식, 계절별 작업 용품 지급 등을 통한 사기진작을 시도했다.

이외에도 작업복 세탁, 안전모 닦아주기 등 근로자 존중 문화 확산과 안전교육 확대 등을 위한 16개 추진 방안이 담겼다.

부천·김포지역에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근로자, 사업주 등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부천·김포시 산재예방사업 세미나

정보 교류를 통해 확대되는 안전문화

부천시와 김포시는 서비스업종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특성상 감정노동자, 요양보호사, 택배 물류 종사자 등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부천·김포지역 안실단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난 7월과 10월, 총 3번의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추진했다.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는 위험성평가 확산을 위한 세미나로 안전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안전일터 조성의 날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안내하는 세미나로 마련되었으며, 2, 3차 세미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및 산재 발생 실태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실시하며 비정규직 안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15초 영상 대상 수상작

60초 영상 대상 수상작

산재예방 60초 영상 공모전 심사표

연번	제목(내용)	이름	배점			총점
			기획력 (40점)	작품성 (30점)	독창성 (30점)	
1	빨간모자와 늑대					
2	산재예방 산재맨					
3	산재예방					
4	산재예방과 함께해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					
5	안전모의 중요성					
6	안전수칙 생명의 길					
7	우리모두 산업재해 조심해요! 예방해요!					
8	산재예방, 너도 할 수 있어					
9	산업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약속					
10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3월 발대식 후 부천·김포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잰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전 국민에게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했다. 앞으로도 부천·김포지역 안실단은 소규모 건설현장, 물류창고, 비정규직 등 어떤 상황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안전문화 확산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 **책임** • 안전보건 '주체' 역할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
- **참여** •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유도 • 근로자 안전개선 제안 활성화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 **중앙**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 선언
-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 **업종** 위험요인·시기별 특화 캠페인

현장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

- **학령기** 초·중·고·대학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구직자** 직업훈련시 안전보건교육 포함
- **근로자** 현장 TBM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인정
- **CEO** 안전보건교육 기획 제공(50인 미만 소기업)

안양

우리 사는 안양, 실천하는 안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경시 의식·문화의 획기적인 전환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역 민간기관, 공공기관, 공단 등 24여 개 기관과 함께 경기서부 안양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양지역 안실단)을 결성하여 발대식을 진행했다.

우리 곁에 언제나 안전문화

적재적소에 맞는 안전문화 캠페인

안양지역 안실단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실단 최초 구성 이후 건설현장 릴레이 현수막 캠페인, 제조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통한 홍보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전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재해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안양지역 안실단은 유관기관들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손으로 실천하는 온열질환 예방

지난 8월 25일, 안양지역 안실단은 동아오츠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과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안양시 소재의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현장에 방문해 온열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온음료인 포카리스웨트에 안전 문구를 담아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동아오츠카의 지원을 받은 포카리스웨트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에 관련된 홍보물도 배포하며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뿐 아니라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명학역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산업현장 캠페인

전 지역민과 함께하는 홍보 캠페인

안양 춤 축제 속 안전 문화

안양지역 안실단은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산재 예방 메시지를 확산하기에 개별사업장 중심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이에 지역 시민 축제인 '안양 춤 축제'를 주목했다. '안양 춤 축제'는 국내·외 각계 각층의 다양한 기관과 지역민 등 매년 30만 명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의 축제임과 동시에 관내 모든 근로자가 모이는 행사이기도 하다. 안양지역 안실단은 해당 축제에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면 안전 문화의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미래 산업인구 대상의 캠페인

안양지역 안실단은 안양 춤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범국민적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미래산업인구인 아이들에게 VR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 현장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올바른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가 하면, 안전모 착용 체험 부스를 운영해 올바른 보호장비 착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안양지역 안실단은 부스 운영과 함께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국민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관내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관련 스티커 및 현수막을 배치하기도 하여 안전한 현장 문화를 조성에 힘쓰기도 했다.

안양 관내 안전문화 스티커, 현수막 게시 현장

게시일	현장
5/10	인덕원 자이 SK뷰(시공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5/12	안양 삼신 6차 재건축 현장(두산건설(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7BL 신축공사 현장((주)한화)
5/15	광명 2R 구역 재개발 현장(대우건설) 평촌 자이 아이파크 현장(GS건설)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현장(SGC건설)
5/22~25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대우건설)
5/25	신안산선 3-1공구 현장(롯데건설) 인덕원 베르텍스 현장(현대건설) 의왕 모비스 연구소 현장(현대엔지니어링)
5/31	평촌 엘프라우드 현장(대우건설) 과천 메가존산학센터(SK에코플랜트) 인덕원역 지식산업센터(에이스건설) 광명퍼스트 스위첸 신축공사(KCC건설)
7/25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포스코이앤씨)

안양 춤 축제

안산

재해 없는 도시, 안전일터 안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는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자체 안전문화 확산 목표 아래, 지역 민간기관인 공공기관, 공단 등 17여 개 기관과 함께 경기서부 안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산지역 안실단)을 결성하여 지난 3월 7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사망사고가 가장 다량 발생했던 건설업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집중하였고, 나아가 산업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안전문화, 일상 속에 뿌리내리다

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위해

안산지역 안실단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캠페인과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출·퇴근 버스 안전문화문구 삽입 등 안전점검 및 캠페인, 산업단지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출·퇴근 버스에 안전문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산업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2023년 건설업을 중심으로 관내 산업재해자가 확산되는 등의 추세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출·퇴근버스에 부착된 문구는 '우리 함께 지켜요. 교통신호 준수, 안전수칙 준수'로, 근로자들이 출근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직접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

근로자와 안실단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현장

지난 4월 12일,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등 관내 업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에게도 안전문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했다. 안실단 단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산업재해 방지 및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근로자들은 현장 안전에 대한 수칙을 한 번 더 되새기며 업무에 임했다.

안전일터 조성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범국민적으로 홍보되는 안전문화

안전에는 국적이 없다

안산지역 안실단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통근 버스에 안전문구 부착,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홍보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단기간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산재 예방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했다. 이에 안산지역 안실단은 지역 시민 축제인 '안산 세계인의 축제'를 주목했다. '안산 세계인의 축제'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모이는 행사이므로 관내 모든 근로자가 모이기도 하는 행사였다. 축제명이 '세계인의 축제'인 것은 지역 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두 모여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안산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축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해당 축제에 안실단과 유관기간이 참석하여 함께 참석하여 안전문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안실단이 울리는 안전경보

안산지역 안실단은 '안산 세계인의 축제'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VR체험 부스와 현장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간이 건강검진 부스를 운영했다. 증강현실을 통해 추락, 끼임 등의 산업재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건강상담 부스는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체성분 분석, 골밀도 측정 등 장비를 활용한 건강상담을 하고, 안전 관련 기념품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산지역 안실단은 삼미시장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가두에서 장바구니 등의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 요인 및 관련 수칙 등 다양한 안전 지식들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안산 세계인의 축제

의정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안전문화를 꽃 피우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등 지역 23개 기관 노·사·민·정으로 이루어진 의정부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안전문화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지역 맞춤, 근로자 맞춤 'All 안전맞춤'

경기북부 지역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제조업 2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주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작업 환경과 더불어 언어적 문제 등으로 한해 8,286명의 산업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총 37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9명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 자료를 보급하고 주요 산업재해 사고유형에 대한 동영상을 이동안전버스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안전문화 홍보

의정부지역 안실단은 지난 6월 11일 '포천시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시 세계인의 날 행사는 매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외국인 근로자의 향수를 달래주고자 개최하는 지역의 큰 행사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주민,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의정부지역 안실단은 VR(가상현실) 체험존과 인바디, 당뇨, 혈압 측정 등 간이 건강검진 부스를 만들어 참석했다.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어로 된 OPL과 영어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체험이 가능한 VR 콘텐츠를 활용해 실감 나는 산업재해를 경험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간이 건강검진 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담간호사의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 증진에도 힘을 더했다.

다국어 OPL

의정부지역 안실단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캠페인

1. 2023 캄보디아 쫄츠남(설) 축제

4월 16일 전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화합의 장인 전통 축제(쫄츠남)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캄보디아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썼다.

2. HaHa(Harmony+Happiness) Festival 2023

10월 15일 세계인과 함께 희망을 꿈꾸는 'HaHa Festival'에 참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다양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한눈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안전보건'

의정부지역 안실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언제나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를 생각하는 의정부지역 안실단의 새로운 시도였던 사진 공모전은 경기북부지역을 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한 작업 모습, 안전설비가 완비된 현장에서의 작업 모습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심사는 김영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2명과 외부 심사위원 2명과 함께 진행됐다. 대상은 민주식님의 '안전벨트 고리 서로 체결 후 작동상태 확인'이 선정됐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사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캠페인 및 교육 등에 활용해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의식 내재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새로움 UP, 안전의식 UP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동종·유사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여러 업체에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가 있다. 교육 자료 사용이 제한적이며, 다수의 국가를 동시통역할 통역 요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의정부지역 안실단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백분 활용해 지역의 행사나 축제를 찾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선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사진이나 VR 콘텐츠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안전문화에 대해 알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축제 등의 지역 행사가 없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며 다시금 시작되는 지역 행사를 미리 준비해 행사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실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그만큼 행사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로도 이어졌다. 사업체를 하나씩 찾아가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의 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은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했다.

의정부지역 안실단은 올 한해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전문화 홍보와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사진 공모전으로 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모습"

대상 - 민주식님

안전벨트 고리 서로 체결 후 작동상태 확인

최우수상 - 안승남님

150미터 높이 지붕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

성남

지역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초석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등 15개 민·관 기관 및 20여 개 기업체로 이루어진 경기동부 성남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성남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9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동부지역의 안전의식과 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민·관이 합동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메시지를 전파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전위험 요인 집중으로 안전감수성 높아지는 중

재발 없는 안전 관리 강화, 안전 제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203년 9월 기준 경기도에 물류창고 1,802개가 소재하며 이는 전국 모든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인천 곳곳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물류가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동부 지역에는 400개의 물류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 분포한 물류창고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5년간 물류창고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중상해 재해는 지게차·차량 부딪힘(18.1%), 넘어짐(14.4%), 떨어짐(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동부지역은 2008년, 2020년 대형 화재 사고 재발로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지역 안실단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지게차 사망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 안전의식과 안전 감수성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통으로 Double up! 더불어 성장하는 현장 안전!

성남지역 안실단은 지난 7월 13일 '2023년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함께하는 물류창고 위험성평가 활동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쿠팡곤지암센터, CJ대한통운 메가허브곤지암, 이천롯데물류센터 등 물류센터 사업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 안내, 물류센터 사례 공유, 사업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위험성평가 활동 우수사례 기업들은 물류창고의 핵심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하우를 발표하고 이를 관련 종사자에게 전파하는 등 상호 교류를 통해 물류창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또한 성남지역 안실단은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게차·물류차량·화재 등 여러 유해 및 위험 요인이 산재한 물류창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물류창고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중상해 재해

18.1%	14.4%	14.4%
지게차· 차량 부딪힘	넘어짐	떨어짐

함께 보는 지게차 안전관리 우수사례

1. CJ대한통운 : 부딪힘 방지를 위한 AI 카메라 활용

지게차에 AI 카메라(AI 인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전후방 시야 확보를 통해 충돌을 예방한다. 또한 접근하는 사람을 감지 및 구조물에 대한 경보음 제거 등 후방 감지 센서 임의 조작을 예방한다.

2.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작업자 동선 분리

지게차 작업구역, Rack-Rack 또는 Rack 전면부는 보행자의 출입이 불가하고, 지게차 작업구역의 외곽 공간은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자 동선을 분리했다. 또한 작업자가 지게차 작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차로 이외에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동선을 구성했다.

지역 축제 안전 지킴이, 성남지역 안실단!

즐거운 축제 한마당, 그리고 안전 한마당

성남지역 안실단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지역 대표 축제로 손꼽히는 '2023 여주오곡나루 축제'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여주가 자랑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여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성남지역 안실단은 축제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지방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 간이 건강검진을 실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와 안전문화 홍보 물품 등을 배포했는데, 특히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 휴대용 티슈는 안전문화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다.

이번 홍보 부스 활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 마음, 한 뜻, 한 자리! 안전한 우리!

경기동부 지역에 소재한 물류창고는 400개소. 사실상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한 자리에 한 뜻으로 모인다면 어떨까? 성남지역 안실단은 위험성평가 중심 으로 '지게차 사망사고 예방', '물류창고 위험성평가 활동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안전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세미나 준비가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사업장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성남지역 안실단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의 협조로 참여 사업장을 확보하고, 지게차 사용 산재다발 사업장 및 지역 대표 기업을 섭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참여를 유도했다.

세미나의 내용도 탄탄했다. 위험성평가 활동 우수사례 기업들은 끼임·부딪힘·화재 등 물류창고의 핵심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축적된 노하우 발표를 통해 소규모 및 고위험 사업장에 기술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했다. 그 결과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성남지역 안실단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안전문화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역 축제를 찾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의식 문화의 획기적인 전환과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 안전의식과 안전감수성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했다. 성남지역 안실단은 2023년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문화에 더욱 집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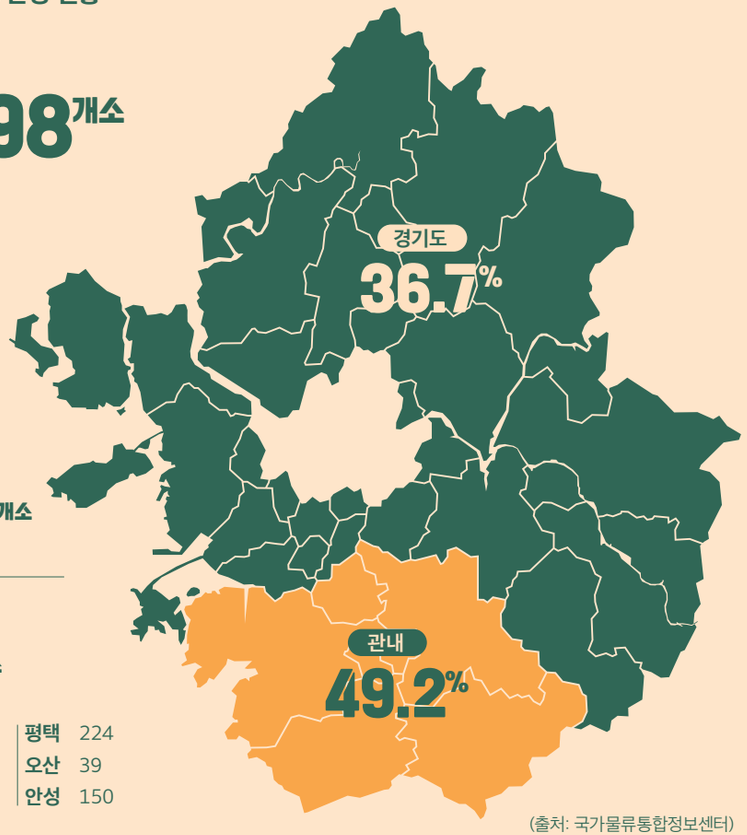
물류창고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세미나

평택

물류창고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으로 이루어진 평택·오산·안성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평택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8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내 물류창고 운영 현황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경기 산업 재해 예방의 A to Z

물류창고가 밀집한 평택·오산·안성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에 수많은 물류창고가 건설됐다. 물류창고가 많은 게 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물류창고와 관련된 산업 재해가 많다는 것이다.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부터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재인 샌드위치패널로 인한 물류창고 화재, 물류창고 운영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딪힘과 끼임, 여름철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평택지역 안실단은 물류창고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시민축제 캠페인

건설현장 캠페인

경기일보
유튜브 채널
업로드

경기일보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등
업로드

지역 대표 언론과 함께하는 산업안전PLUS

평택지역 안실단은 발대식 이전부터 경기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다. 2023년 초부터 2023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안전PLUS'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다 산업 현장 가까이에서 안전문화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산업안전PLUS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중 하나인 경기일보와 경기지역 안실단, 평택지역 안실단이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 및 안전문화 관련 기획 기사, 전문가 특별 기고, 그래픽 뉴스 등을 경기일보 지면과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해 경기도 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10월 기준 기획 기사 6개, 산업안전 홍보 숏폼 3개가 경기일보 온·오프라인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산업안전PLUS는 특히 '물류창고 산업 안전 예방'에 대해 주목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발표한 국내 물류창고 운영 현황에 의하면,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에 위치한 물류창고 1,799개 중 413개가 평택, 오산, 안성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안실단은 산업안전PLUS에 물류창고 테마를 따로 만들어 경기도 내 물류창고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건설현장 위험 out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

지난 10월 평택 석정 화성파크드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화 의지를 다지는 구호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평택·오산·안성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한다고 밝히며 평택지역 안실단과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한 것이다. 이후로도 평택지역 안실단은 안실단 내 건설 분야 14개 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는 쉽고 간단하다. 14개 기관이 3개 팀으로 나눠 일주일 간격으로 공통된 안전문화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촬영 후 안실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마스코트인 '고드래곤' 등신대를 약 일주일 동안 기관 로비 또는 교육장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해 안전문화를 알리면 된다.

나부터 실천하는 안전문화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를 완료한 근로자들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영상이 평택은 물론 전국의 건설현장으로 퍼져 나가 국내 모든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길 기원했다.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 영상은 안실단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평택지역 안실단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또한 평택 내 증가하는 건설현장과 물류창고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협의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 공통 구호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 파이팅!

고양·파주

예비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취업 컨설팅 추진

고양·파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고양·파주지역 안실단)은 고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지자체(고양시, 파주시) 및 기타 유관기관을 포함해 23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난 3월 16일 발대식 개최로 공식 출범하였다. 고양·파주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컨설팅, 점검,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취업 콘서트 개최

미래 인력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

예비 산업인력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의 중요성

고양·파주지역 안실단은 관내의 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설업 등 중대규모의 사업장 외에도 일반 다양한 업종에서의 재해 발생현황 비중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에 특수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보다는 일상 속의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안실단이 처음 출범한 데다가 아직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이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음을 고려하다 보니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 중에서도 소방학과, 소방안전과, 소방행정과, 자동차학과 등을 운영하는 서영대학교, 중부대학교의 예비 산업인력을 중점으로 예방 차원의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취업 후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안전문화 예방 인식 제고가 필요한 타깃 중 하나다. 이에 고양·파주지역 안실단은 예비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교육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취업 컨설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산재예방지도과·안전보건공단	재해사고사례 VR체험 등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내용)**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산업안전캠페인 운영 **(방법)** 재해사례 등 VR체험
파주고용센터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안내 **(컨설팅)** 워크넷 교육 운영 기관의 취업컨설턴트 참여
근로감독과	**(컨설팅)** 사회 초년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컨설팅

예비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취업
컨설팅 및 취업 콘서트 개최

고양·파주지역 안실단은 대학생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를 추진했다. 먼저, 지난 5월 10일 고양시에 소재한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9월 26일에는 파주시 소재의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를 방문해 축제기간을 활용하여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에는 파주시, 파주고용센터 등과 함께 안전&취업 컨설팅을 추진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안전문화가 아직 만연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산업인력을 대상을 안전문화라는 키워드로 유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예비 산업인력과 관련된 소재 발굴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취업에 관심이 많은 예비 산업인력의 니즈를 활용해, 안전문화와 취업을 연계하여 취업 컨설팅&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관심을 십분 유도할 수 있었다. 안전교육 후에는 관련 공공기관으로의 취업 설명회를 병행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안전 VR 콘텐츠를 운영해 흥미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파주고용센터 근로감독과, 파주시 등의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취업 관련 제도의 설명, 구직업체와 구직자의 연결 통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 및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했다.

안전&취업 컨설팅

중·소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으로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한다

발전하는 고양특례시,
늘어나는 산업 인력에 대비할 것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월에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며 서울과 고양, 파주를 잇는 GTX 준공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고양시 창릉, 파주시 운정에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산업 현장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산업인력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만큼 사고재해 수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고양·파주지역 안실단은 고양시 중·소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으로 사고와 사망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이 개별 협력업체(12개사) 및 입주업체(175개사) 총 187개사를 대표해 안전문화 실천 서약을 시행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소기업 내 산업 및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실무자가 될 약 1,000여 명의 예비 산업인력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고양·파주지역 근로자 증가 및 사고재해 현황

2018년 대비 근로자의 수

15.7%↑ 6만 9589명 증가

사업장 **28.3%** 1만 8870명

*전국 근로자와 사업장 증가율이 각각 9.7%, 13.9%인 것을 고려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이다.

2022년에 발생한 사고재해자

3,107명

*하루에 평균 9명의 사고재해자 발생, 주요 원인은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이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Part 5

광주권

광주권 안실단은 과거를 돌아보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이에 지역 내 안전일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객 대상 안전 캠페인, 지역 사회에 산업 재해 예방 분위기 확산을 통한 TV 광고 캠페인도 진행했다.

134

광주
하나되는 일터, 안전한 광주

우수사례 인터뷰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이종관 부장

139

전주
한옥마을부터 부안댐 물문화관까지 관광객을 찾아가는 캠페인

140

익산
나부터 예방하는 추락사, 모두의 안전을 지키다

144

148

군산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안전문화

156

여수
TV 캠페인 영상과 맞춤형 슬로건으로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 전개

152

목포
『건설현장 대형 수직방호막』 설치로 시선을 사로 잡다

제주
명확한 콘셉트 꾸준한 캠페인으로 안전 제주 만들기

160

광주

하나되는 일터, 안전한 광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추진 단장으로 운영되는 광주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9일 KBC광주방송,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삼성전자 등 31개의 노·사·민·정 기관이 함께 발대식을 진행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밝은 미래를 계획하다

2021년과 2022년 광주에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2021년 6월에는 철거 중이던 빌딩이 붕괴돼 9명의 사망자를 냈고, 2022년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로 6명이 사망한 것이다. 단순히 공사를 맡은 기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부족함을 느꼈던 광주지역 안실단은 과거를 돌아보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이에 광주지역 안실단은 지역 내 안전일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산업 재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TV 광고 캠페인도 진행했다.

안전문화 의지를 다지는 분야별 결의대회 개최

광주지역 안실단이 활동하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등에는 다양한 사업장이 있다. 그중에서도 광주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기아오토랜드 등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에 광주지역 안실단은 발대식 후 곧바로 삼성전자, 기아오토랜드 등과 접촉해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한 산업 분야별 결의대회를 기획했다. 3월 29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제조 분야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뒤이어 4월 27일 건설 분야의 중대재해예방 결의대회, 6월 14일 기아오토랜드 광주 사업장에서 제조 분야 상생 협력 결의대회, 7월 18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적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600여 명에 이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결의대회에 참가해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또한 광주지역 안실단은 결의대회에서만 안전문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월 1회 이상 협력사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문화 의식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광주지역 안실단은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삼성전자 협력회사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안실단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한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협력업체 중 뉴모텍, 에스피엘(주), 부천공업(주), DH글로벌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안전점검회의(TBM)을 항상 실시했다. 작업 전 근로자 모두 함께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음주 측정 및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딱 맞는 현장을 갖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는 삼성전자의 모든 협력회사에 공유돼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였다.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 협력회사 위험성평가 세미나

광주지역 안실단은 지난 7월 21일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 협력사들의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기아오토랜드 및 39개 협력회사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모기업과 협력회사 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당부 사항을 전달하고, 위험성평가 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협력회사의 자율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안전문화 홍보활동

중대재해 예방 공동 캠페인 광고 TV 송출

이밖에 광주지역 안실단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지역 안실단인 KBC광주방송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공동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에 송출했다. 광고 영상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 사업장 자체 실행 매뉴얼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 예방 공동 캠페인 광고 영상은 KBC광주방송, 광주광역시청,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본사 2개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작하여 TV 광고로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광주지역 안실단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광판, 현수막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공단 미디어, 안전문구 등 안전문화 노출하기 효과를 극대화했다.

광주지역 안실단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11월 14일과 12월 1일, 지역 내 중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광주학생 안전짱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11월 30일에 광주지역 안실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 실적 및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도 개최하였다. 2024년에도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공동선언문

하나. 우리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 및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 및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안전수칙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과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다하며 법규 준수를 통해 성숙한 안전보건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광주지역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기아 오토랜드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광주지역 안실단 정기회의

TV캠페인

광주학생 안전짱 골든벨

Interview ● 광주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현장의 안전을 지킨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이종관 부장**

광주지역 안실단 관내에는 삼성전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굵직한 대기업 공장은 물론 소규모 건설현장도 곳곳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광주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와 함께한 사업이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내 안전문화 확산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협력사 대표 집중 안전 교육, 무재해 릴레이 캠페인, 발주자·협력사 합동 공사 현장 위험성평가, 협력사 긴급 교육 지원팀 운영,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작업 전 공사별 맞춤형 안전정보시스템 개발 및 제공,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 입니다."

이렇듯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행사, 캠페인, 교육, 시스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진행한 안전 결의대회가 많은 사람에게 안전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안전 결의대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200여 협력회사 대표들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전 결의문 선서, 안전관리 방안 발표, 안전 일터 조성 무재해기 서명 및 퍼포먼스, 안전 특강 등을 진행해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전역의 산업 현장에서 추진되는 안전활동을 공유해 현장의 안전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담양 안전 체험 시설 개관으로 지역민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또한 꾸준히 릴레이 안전경영 활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모든 릴레이 캠페인이 끝나면 사업소별 합동 공사 현장 안전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도 진행해 광주 전역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 사전 발굴과 개선은 물론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 및 지원 등을 강화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부터 부안댐 물문화관까지 관광객을 찾아가는 캠페인

전주시는 전통과 조화를 이룬 도시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과 여러 전통문화 시설이 있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도시다. 전주지역 안실단은 발대식에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주지역 산업의 특성과 산업재해 통계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주 한옥마을 안전문화 캠페인

관광 도시에서 안전문화를 만나다

전주 한옥마을 안전문화 캠페인

전주지역 안실단은 안실단 출범 첫해인 만큼 안전문화 노출 빈도를 높이는 캠페인에 집중했다. 2023년 5월 40여 명의 안실단이 모여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일대에서 안전문구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조속한 사고사망 예방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원하며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행사였다. 전주 시민뿐 아니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안전문구 노출에 집중했다.

관광객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캐릭터가 그려진 티슈와 스티커, 그립톡 등을 전하며 일상에서의 안전문화를 강조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관광객들도 이들이 건넨 홍보 물품을 받으며 한 번 더 안전문구를 마음에 새겼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상에서의 안전문화가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길 바라며 전개한 캠페인이었다.

휴가철 전주역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다

전주지역 안실단은 2023년 7월 휴가철을 맞아 전주역에서 대규모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 관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역에서 철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캠페인은 휴가철을 맞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 본부 및 유관기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철도 탑승구, 대합실, 광장, 택시 승강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문구를 홍보했다. 무더운 여름철에 맞춰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과 부채 등을 배포해 관심을 이끌었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주지역 안실단은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체감도 높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전주역 내 디지털 사이니지에도 산재 예방 슬로건을 노출해 전주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문화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다.

휴가철 전주역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다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말한다.

여름철 관광객과 함께한 안전문화

부안댐 물문화관 안전문화 부스 운영

2023년 8월 4일부터 이틀간 부안댐 물문화관에서 다채로운 안전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수자원공사,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 등 주요 기관의 간의 협업이 필요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행사 계획 수립과 안전부스 운영을 맡고, 수자원공사는 행사장 및 부스 제공,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는 행사운영 지원과 보건부스 운영을 맡아 서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임시난간과 조명시설, 무대 장애물과 전기시설 등 행사장 안전점검을 진행해 만일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안전보건네트워크,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 건설안전협의체, 제조서비스협의회, 안전협회, 보건협회, JTV 등 노·사·민·정 대표 70여 명이 함께 모여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 결의대회를 열어 각 주체로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다양한 체험행사로 이목을 끌다

전주·익산·군산지역 안실단은 부안댐 물문화관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안전문화 실천 부스에서는 안전 퍼즐 맞추기, 안전 다짐 엽서 쓰기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는 안전룰렛을 돌릴 기회를 주어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다. 안전보건 부스에서는 보호구를 체험하고 체성분 분석과 혈압, 혈당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전주지역 안실단은 부안댐 물문화관에서 다채로운 안전보건 체험 활동, 안전문화 행사를 펼쳐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전주지역 안실단 관계자 40명이 함께 했는데 한여름 폭염에 방문객뿐 아니라 진행 관계자들 또한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실단은 손선풍기, 부채, 물티슈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제작, 배포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방문객에게 얼음물을 무한 제공했다. 부안군은 부안댐 물문화관에 쉼터를 마련하여 어떠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세계적인 축제의 현장에서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기에 이뤄낼 수 있던 일이었다.

부안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안전문화 행사 방문객

총 방문객 **2,000여명**

방명록 작성 **402명**

8월 4일 **150명**

8월 5일 **252명**

메인무대 전경

안전퍼즐 맞추기

심폐소생술 체험

시설점검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주기적인 환기
- 야간 작업 시에도 실내 온도 관리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

휴식

- 폭염 특보 발령 시 규칙적인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 휴식 부여, 옥외작업 최소화
- 근무시간대 조정
- 작업 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익산

나부터 예방하는 추락사, 모두의 안전을 지키다

지난 3월 9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지역 노·사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 18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익산-김제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익산지역 안실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김제 추락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축사 추락 사고사망자 수 0명에 도전하다

익산과 김제지역엔 푸른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이곳에서는 여전히 1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농공단지를 갖추고 국가 식품 클러스트가 조성되는 등 제조업도 많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런 산업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현장도 곳곳에 위치한다.

1차 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주요 산업현장이 밀집한 익산과 김제지역의 분야별 사고사망자 수를 확인하면, 추락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1년도는 전년 대비 추락 사고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추락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2020년 10월 이후 사망 재해가 없어,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재해가 사망 재해로 연결되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익산지역 안실단은 건설업에서의 추락 재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1차 산업과 제조업 등 익산-김제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했다.

부식된 지붕으로 발생하는 축사 추락사

익산지역 안실단은 발대식 이후 봄 가을철 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집중했다. 축사 지붕은 여름엔 뜨거운 열을 받고, 겨울엔 차가운 눈이 쌓이길 반복하면서 쉽게 부식된다. 보수 공사를 위해 부식된 지붕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랐다가 아차 하는 순간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익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축사 지붕 수리 중 추락사가 발생한다. 누군가는 사망사고자 수가 적은데 굳이 안전문화 확산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지만, 익산지역 안실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축사 추락 사고사망자 수 0명으로 줄이고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을 필두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축사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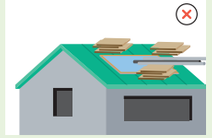
익산지역 안실단은 익산 지역 내 축산 주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익산군산축협 한우전자경매장에서 축산주들을 대상으로 추락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당일, 현장에서 송아지 경매가 진행돼 축산 주인과 관련 사업주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익산지역 안실단은 다양한 안전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슬로건을 경매장 곳곳에 부착하고 어깨띠를 착용한 후 축산 주인들과 만나 축사 지방 개보수로 인한 추락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축산업 산업 재해 사례 및 안전 대책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지역 내 추락사 방지를 위해 애를 썼다. 이후에는 축산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추락사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하도록 축산업 종사자 집합 교육 장소 6곳에 현수막과 X배너를 설치하고, 지역 신문에 5단통 지면 광고를 게재했다. 축산 종사자들은 캠페인 이후에도 교육장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며 지붕 추락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다시금 재고할 수 있었다. 익산지역 안실단은 2024년에도 축사의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시청 관내 최근 4년간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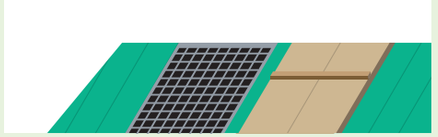
연도	업종/형태	추락	끼임	깔림	부딪힘	맞음	기타
2020년 (5건)	제조업						1
	건설업	1					
	기타			1		1	1
2021년 (5건)	제조업		1				
	건설업	2					1
	기타				1		
2022년 (6건)	제조업						
	건설업	1	1	1			
	기타	1					2
2023.8월 현재 (5건)	제조업			1			
	건설업	2					
	기타	1					1
계	21	8	2	3	1	1	6

지붕 작업 핵심 예방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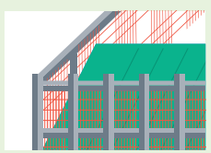
❶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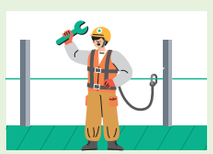
❷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 적재 또는 과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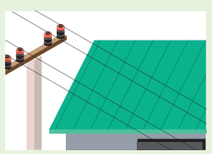
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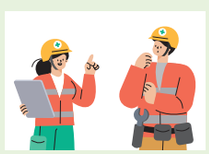
❹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❺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한다.



❻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❼ 지붕 해체 작업 전,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이행·교육을 실시한다.

출처: 중대재해 사고백서

건설현장의 추락사 위험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익산지역 안실단은 지역 내 산업 재해 사고사망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2곳으로 나갔다. 먼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을 포함 16명의 익산지역 안실단은 현대건설(주)에서 맡고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신축 공사 현장을 새벽에 방문했다. 현장 주변에 안전 구호를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을 들었다. 이윽고 현장 근로자들이 하나둘 출근하자 익산지역 안실단은 우렁찬 안전구호를 외쳤다.

출근길 캠페인 이후에는 현장 근로자 130명을 포함 146명의 관계자가 자기 선언문을 낭독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기 분야, 통신 분야 등 공정별로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해 작업 전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각인했다. (주)GS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도 출근길 캠페인이 이어졌다. 이곳에서 역시 작업 개시 전 100여 명의 근로자들과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고 현장 내 위험 요소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전의식에 대한 함양을 고취했다.

익산지역 안실단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2024년에도 제조업 추락사 관련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여 익산지역 내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군산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안전문화

군산지역 안실단이 지난 3월 8일 전북 서부 지역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부서부지사, 공공기관, 민간 협의체를 포함 17개 기관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범국민 군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늘어나는 건설현장, 증가하는 인구

관광지로 유명한 군산이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수많은 관련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전지 기업의 기반을 닦기 위한 건설현장도 늘어나고 있어 군산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 안실단은 근로자와 시민의 자율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산업 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노·사·민·정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가두캠페인

안전슬로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전북 노·사·민·정 합동 안전문화 실천

군산지역 안실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대형 규모의 네트워크 장으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방문한다.

이에 군산지역 안실단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박람회장에 안전부스와 보건부스를 마련했다. 군산지역 안실단은 안전부스에서 안전퍼즐 맞추기, 안전엽서 쓰기,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보호구 체험, 안전룰렛 등 보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남녀노소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보건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인바디 체험, 건강 상담 등이 진행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안실단은 박람회장 내·외부에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문화에 관한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안전 구호를 외치는 등 안전문화가 최대한 많이 노출되도록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군산지역 안실단은 3일간 진행된 행사 동안 부스를 방문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60여 명과 방문객 150여 명에게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202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시민 곁에서 실시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 길거리 캠페인

은파호수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지는 안전 결의

군산지역 안실단은 4월 20일 군산 대표 산책로인 은파호수공원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은파호수공원을 포함하여 군산 대표 인구 밀집 지역 네 곳에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은파호수공원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협의체 등 관련 담당자 50여 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협의체 회장이 직접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이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관한 의지를 굳게 다졌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현수막을 들거나 어깨띠를 매고 은파호수공원, 수송동 롯데마트 앞, 이성당 군산 시간여행안내소 앞, 월명호수공원 등을 지나며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산꽁당보리축제장의 안전 지킴이

군산지역 안실단은 지역 축제에서도 대국민 안전문화 활동을 이어 나갔다. 군산의 대표 지역 축제인 군산꽁당보리축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친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 담당자 4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축제장 주변 화재, 가스, 전기 등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축제장 곳곳에 걸고 어깨띠를 맨 채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축제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축제장에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 군산지역 안실단 덕분에 축제 방문객들은 안심하며 축제를 즐기고, 다시 한번 안전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군산지역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파호수공원

군산꽁당보리축제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 유해·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 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귀덮개)

출처: 중대재해 사고백서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

군산꽁당보리축제 캠페인

목포

『건설현장 대형 수직방호막』 설치로 시선을 사로잡다

전남서부지역 안실단(이하 목포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9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등의 행정기관과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 전남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노총 등의 노·사단체, 지역 내 대기업, 언론기관, 지역협의체 등의 유관기관 30개와 협업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현장 수직방호망을 활용해 안전문화 메시지를 넓은 가시 범위로 확대·홍보

캠페인의 연속성을 실현하다

현장을 넘어 일상으로 보내는 메시지

지역 내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목포지역 안실단의 2023년 캐치프레이즈는 '안전을 위한 준비! 일상에서의 습관!'이었다. 이처럼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이사이에 정착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포지역 안실단의 주된 목표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남서부지역은 한 해 동안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항만운송 기관·단체합동점검 및 캠페인,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락재해 예방 라디오캠페인, 안전응원 음성메시지 공모전 등 현장을 넘어 일상 가까이 찾아가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채로운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VR 안전체험, 어린이 안전문화 실천 포스터 공모전 등을 운영하며 세대를 넘나드는 메시지 전달 또한 충실히 이행했다.

어린이 안전문화 실천 포스터 공모전 수상

공모전이 끝나고 난 뒤

목포지역 안실단은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위험을 표현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안전책임을 가지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어린이 안전문화 실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다. 목포시·영암군 소재의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전은 지난 2023년 5월에 시작해 6월 14일에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후로 3차에 걸쳐 전시회가 진행되었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이 시상과 전시회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목포지역 안실단의 아이디어로 공모전 작품은 전시회 이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현장의 대형 수직방호망에 공모전 작품을 이용한 현수막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다. 본 캠페인의 위치는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으로, 28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직으로 높아지는 현장을 활용했다. 높아질수록 평화광장부터 만남의 폭포 사거리까지 노출 범위가 넓어져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모전은 신축공사 수직방호망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을 위한 현수막으로 만들어 게시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사용되어 캠페인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사업장 특성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

목포지역 안실단이 안전문화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 지역인 목포는 관내 산업 특성상 조선업, 어업, 농업 분야 등이 포진되어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의 언어로 만들어진 안전문화 안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본 안내문에는 각국의 나라 언어로 번역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등이 담겨 있어 교육 시 활용했다.

특히 조선업은 사고가 빈번한 편은 아니지만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중증 이상의 사고가 집계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필수로 실행되고 있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호소력 짙은 안내문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구두 교육 시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다. 안내 전단지뿐만 아니라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형태로도 만들어 현장에서 붙여두고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메시지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

'안전! 대한민국' 홍보관 운영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전남지역의 오랜 역사를 지닌 대규모 지역 축제로 유명하다. 목포지역 안실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수만 명이 모이는 축제 등을 활용해 '안전! 대한민국'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에 집중했다. 3일간 운영될 홍보관 부스 위치는 방문객이 많은 출입구 쪽 부스를 선정하여 설치했다. 홍보부스에서는 현장별·작업별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에 관한 안전 퀴즈 풀이를 진행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풍선을 부는 코너,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디·혈압 측정, 당뇨검사 및 결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카드북, 포스터, 위험 요인 체크리스트 등의 안전보건 자료를 배포해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2023년 동안 사용할 목포지역 안실단의 슬로건 투표를 진행해 안실단의 역할을 홍보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OPS 등 배포

대불국가산업단지 외국인 한마당 대회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

건설현장 슬로건 투표

목포지역 안실단 자체제작 안전보건자료 5종 활용사례

목포지역 안실단은 안전보건자료 5종 활용사례를 자체제작해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경고표지 스티커, 수산물 양식업 안전보건가이드,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법, 사용자교육 길라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 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양식업 안전보건가이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사용자교육 길라잡이

경고표지 스티커

여수

TV 캠페인 영상과 맞춤형 슬로건으로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 전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노·사단체, 지역 언론 등 25개 기관으로 꾸려진 전남동부 여수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여수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1일 발대식을 하고,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4대 전략 중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특성과 타깃을 고려하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여수

여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GS칼텍스,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의 대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이끌고 있다. 석유화학, 비료, 정유 등을 소재로 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여수지역 안실단은 중화학 공업시설이 있는 산업단지 특성에 맞춰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슬로건을 제작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문화를 노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여수산업단지에 연고가 있는 점을 고려, 생활 반경 안에서 안전메시지를 볼 수 있게끔 통근버스와 사택 버스 정류장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TV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발걸음

GS칼텍스(주) 여수공장과 함께한 생활 밀착 홍보

여수지역 안실단은 사업장 안전문화 노출하기를 목표로 지난 7월부터 GS칼텍스(주) 여수공장과 함께 1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근길부터 공장을 이동하는 동선과 퇴근길까지 만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슬로건을 노출했다.

먼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마주하는 통근버스 TV와 1공장 전광판에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TV 캠페인 및 23년 안전송을 송출하고 1공장 정문에 화재폭발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안전문화 내재화를 유도했다. 점심시간에 볼 수 있는 구내식당 티슈통에는 안실단 슬로건을 활용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동할 때 마주치는 100여 개의 게시판에 위험성평가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안전메시지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1공장 버스정류장 4개소와 사택 버스정류장 2개소에는 가족 사랑을 강조한 안전메시지를 부착해 근로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근버스 유리창과 차량 옆면 등에 홍보 이미지를 부착했다.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

GS칼텍스(주) 여수공장 통근버스는 3교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여수 시내 주요 길목을 운행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매체였지만 운행사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여수와 순천에 위치한 운행사 2곳을 직접 찾아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설명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산재 예방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고, 캠페인 종료 시 홍보 이미지 제거에 대한 운행사의 부담을 없애주면서 무료로 안전메시지 노출이 가능하게 됐다.

GS칼텍스 현수막

사업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메시지가 닿기까지

TV 캠페인 제작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확산

여수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메시지 노출을 사업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시켰다. 여수MBC, GS칼텍스(주) 여수공장과 협업해 사업장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근로자의 동선을 따라 안전문화를 노출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영상은 여수MBC 채널과 여수MBC가 운영 중인 광양CGV 영화관을 통해 송출됐으며, GS칼텍스(주) 여수공장의 직원과 그 가족이 모델로 출연하여 현실감과 의미를 더했다. 이렇게 여수산단 사업장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 1차가 기업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현재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기업과 함께 2차, 3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수지역 안실단은 자차 이용 비율이 높고 인근 지역 간 왕래 빈도가 높은 특성에서 착안, 한국 도로공사와 협업해 섬진강휴게소를 포함한 9개소 휴게소와 톨게이트 15개소에 현수막 및 배너, 방호벽 홍보판 등을 설치하며 사업장과 시민들의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사업장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

414개소
GS칼텍스(주) 여수공장 및 사택, 통근버스 등에 근로자의 동선을 따라 안전문화 노출 수량

71일
여수MBC와 제작한 TV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 일수

3개월
광양 CGV 영화관 광고 및 홍보 전광판 송출 일수

32대
안전메시지를 부착한 통근버스 수

포스코 구내식당 화장실 홍보판

포스코 구내식당 출구 배너

포스코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전광판

[여수mbc] 2023 안전문화확산 캠페인(오늘도 안녕하겠습니다)

제주

명확한 콘셉트 꾸준한 캠페인으로 안전 제주 만들기

제주도는 내외국인을 합쳐 연간 약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가는 국내 최대 관광 지역이다. 제주지역 안실단은 공공기관, 노·사단체,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19개 단체로 출범, 참여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23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되었다. 제주지역 안실단은 관광 지역인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관내 사업장의 안전문화 실천을 강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자 했다.

입도부터 출도까지, 안전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관광지에서 안전을 만나다

제주지역 안실단의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의 기본 콘셉트는 '입도入島부터 출도出島까지'다. 관광객이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입도했을 때, 교통편을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호텔이나 리조트에 숙박할 동안,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에서, 다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도할 때까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최소 5회 이상 안전문화 실천 관련 문구를 만날 수 있게 설계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안실단은 지자체와 제주공항의 전광판 17개소와 버스정류장의 전광판 800개소에 안전문구를 송출하고 제주항과 숙박 시설, 관광지에 현수막 24개와 배너 28여 개를 설치했다. 여름철에는 부채 2,000개를 배포하는가 하면, 안전문구를 삽입한 제주 관광 지도를 배포 중이다. 말 그대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여행 내내 안전문화 캠페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 부영호텔&리조트, 일출랜드, 이마트, 상효원, 세계자동차&피아노박물관, 카멜리아힐, 마라도로 가는 여객선 등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와 관광 업체에서 관광객들은 안전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행지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안전

제주지역 안실단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대한 많은 곳에 안전문화 문구를 표출하고자 노력했으나 제주도 내 관광지가 워낙 광범위하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아직 낮은 상황이라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첫해이니만큼 '입도부터 출도까지'라는 제주지역 내 안전문화 캠페인 콘셉트를 공고히 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 안실단은 지자체와 안실단 유관기관인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와의 협업으로 홍보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제주지역 안실단이 '제주에서 힐링하셨다면 일터에선 안전하세요'라고 관광 지도에 넣은 안전문구처럼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한 관광객들이 일터에 돌아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문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랐다.

1社-1Key Message

7월 결의대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내일이 더 안전한 제주

나의 다짐 릴레이 캠페인

2023년 3월 말 제주지역 내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하였다(조사기준).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지역에 사망 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제주지역 사망 재해 5건 중 3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면서 제도 행정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했다. 제주지역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점검반을 편성, 건설현장 Red Zone 대상 보호구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감축 특별강조 기간을 5월에 운영하였다.

특별강조기간 운영과 더불어 제주지역 안실단은 건설현장 소장 및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나의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나의 다짐' 릴레이 캠페인은 제주도가 그려진 대형 깃발에는 현장 소장이, 연명부에는 작업자가 서명과 다짐을 적고 이 깃발과 연명부를 다음 현장으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7월 자체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안전문화실천 공동결의)후 확대되어 제주 전역 80개소 사업장에서 1,376명이 참여해 안전문화 실천을 다짐하였다.

우리가 만든 우리 사업장 안전문구

제주지역 안실단은 안전문화 실천 확산을 위해서는 행사성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안전문화 실천을 보다 더 습관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건설업 위주였던 캠페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했다. 그리고 '1社-1Key Message'라는 콘셉트를 적용하여 핵심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고 예방 문구와 구체적인 슬로건을 사업장에서 직접 발굴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이 결과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었다. 판에 박힌 안전문구가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도출하고 선정한 안전문구를 내걸면서 안전문화 실행력 강화를 꾀할 수 있었다.

나의 다짐 릴레이 캠페인

캠페인 초기에는 사업장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참여율이 저조했다. 사업장에 맞는 안전문구를 직접 정해보라고 하면 적당한 문구를 하나 골라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안실단은 9월 안실단 실무회의 및 긴급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해 사업장의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점차 참여 사업장이 늘어 사업장 32개소에 '기계설비 청소, 점검 시 전원차단은 필수!', '안전모는 꼭!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신호수배치!!!!'와 같은 보다 구체인 사업장 맞춤형 Key Message 를 도출하여 사업장 자발적인 안전문화 운동의 초석을 다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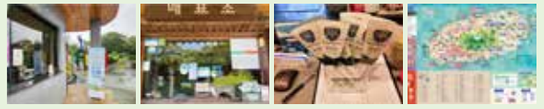
안전문화 대국민 홍보 콘셉트 '입도入島부터 출도出島까지'

입도 — **공항/항구**
- 제주 공항 전광판 영상 송출
- 제주항에 현수막, 배너 게시

이동 — **대중교통**
- 버스 정류장 및 이동경로상 전광판

숙박 — **호텔/리조트**
- 입구 및 로비에 현수막 및 배너 개시

관광 — **관광지**
- 안전문화 전파용 관광지도 및 홍보용 부채 배포



출도 — **공항/항구**
- 제주 공항 전광판 영상 송출
- 제주항에 현수막 게시

제주도 관광객 입도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1~9월	2022년 1~9월
내국인	9,610,307	10,400,160
외국인	470,156	45,791
총 계	10,080,463	10,445,951

제주지역 안실단 우수사례

세부행사	장소	내용
캠페인	제주도 내 유관기관 80개소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실천 의지 강화를 위한 나의 다짐 릴레이 캠페인, 1社-1Key Message 지정
	제주국제공항 및 호텔, 관광지 등	제주 안전문화실천운동 '입도부터 출도 시까지'를 바탕으로 공항에서부터 이동, 숙박, 관광, 출도시까지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문구 표출

Part 6

대전권

대전권 안실단은 시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다양한 홍보 창구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했다.

176

충주
안전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다리 'Safety Bridge'

180

천안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운영

166

대전·세종
대세(대전·세종)는 안전문화

172

청주
맞잡은 손에서 피어나는 안전문花

184

보령
재미있고 알차게 깨닫는 안전문화

서산·태안
대형 화재와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장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190

171

우수사례 인터뷰
대전MBC 남유식 아나운서

대전·세종

대세(대전·세종)는 안전문화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3일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수많은 귀빈이 참여해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촘촘한 네트워크로 다양한 홍보 진행

46개 기관과 함께하는 대전·세종지역 안실단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대학교까지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MBC 등 지상파 3사를 포함 지역 언론사 4개사와 안전문화 확산 파트너십을 체결해 다방면으로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3년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의 목표는 시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사업장 안전수칙 및 생활 속 안전문화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다양한 홍보 창구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인플루언서가 패러디한 영화로 만든 안전문화 쇼츠 영상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대전MBC 남유식 아나운서를 안전문화 실천 메시지 보급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대전MBC와 재미있는 쇼츠 영상 5편을 제작했다.

쇼츠 영상은 다중이용시설, 제조업, 건설업, 식당 안전수칙, 위험성평가에 대해 다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식당 안전수칙 영상에는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안전문화를 확산하려는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의 바람이 담겼다. 쇼츠 영상은 인기 영화를 패러디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제조업 영상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다. 이외에도 영화 <신세계>, <타짜> 등을 재치 넘치게 패러디하면서도 남유식 아나운서가 핵심 내용을 콕 집어 이야기해 지역민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약 120만 명에게 안전문화 메시지 노출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시민과 근로자 약 120만 명에게 쇼츠 영상을 노출했다.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남 지역의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SNS는 물론 지역 청사 외벽 전광판,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단말기, 도시철도 역사 및 전동차 내 LCD 모니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등 약 2,000개소의 보유 채널을 활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실천추친단이 보유한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쇼츠 영상 알림 메시지를 송출함으로써 더욱 많은 시민들이 쇼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쇼츠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홍보대사 임명식

풀뿌리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문화 확산

안전문화 청년 서포터즈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지역 내 예비 산업인력인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안전문화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지역 대학교인 우송대, 한밭대, 충남대, 대전보건대학에 다니는 21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이들은 7월 대전·세종·충청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위촉식을 진행하고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안전 체험 교육을 받았다. 서포터즈는 안전보건공단 제천체험교육장에서 안전대 매달리기, 안전시설물을 체험하는 등 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했다.

이후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견학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서포터즈는 '제7회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과 '2023 세종축제' 행사에서 안전문화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켰다.

SNS 콘텐츠를 활용한 서포터즈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청년 서포터즈는 지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콘텐츠도 직접 제작 및 배포했다. 서포터즈 활동 중 교육받은 SNS 콘텐츠 제작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안전문화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대전·세종지역의 안전문화 SNS 계정을 개설하고 안전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 및 메시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확산했다. 이외에도 안전문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의 쇼츠 영상과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 덕분에 대전·세종지역 내 안전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VR체험

안전문화 청년 서포터즈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이 보유한 홍보 인프라

대전광역시

버스 정류장 버스 안내 단말기 800개

- 대전시 보유 홈페이지, 블로그, SNS
- 청사 외벽 전광판 등 6개소
- 청사 내 엘리베이터
- 종합민원실 LED 게시판
- 대기오염 전광판(2개소)
- 구별 보유 홍보매체(전광판, 모니터)
- 도시철도역사 및 전동차내 LCD모니터
- 아파트 EV 內 모니터(300여 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주요 도로 전광판 9개소

- 세종시 보유 홈페이지, 블로그, SNS
- 청사 엘리베이터, 민원실 모니터
- 전통시장 전광판(2개소)
- 버스 정류장 버스 안내 단말기(640개)
- BRT 전기굴절버스 내부 모니터
- 아파트 EV 內 모니터(200여 단지)

충남 지역

충남지역 지자체 보유 전광판 및 SNS 등

안전문화 청년 서포터즈

안전문화 실천 메신저

대전MBC **남유식 아나운서**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진행하고 대전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철주야 몰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대전MBC 남유식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결의대회, 캠페인, 현장 점검 등 다양한 사업 중에서 남 아나운서와 함께한 안전문화 쇼츠 제작이 대전 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현재 대전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매일 사건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던 차에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2024년 4월까지 열심히 안전문화 메시지를 알릴 예정입니다."

남 아나운서는 대전·세종지역 안실단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대전·세종지역 안실단에서 진행하는 대전·세종·충청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등에서 진행을 맡았다. 또한 유튜브 홍보를 위한 안전문화 쇼츠 제작에도 참여했다.

"쇼츠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대전·세종지역 안실단 담당자, 작가, 감독님과 고민하다가 영화 패러디를 소재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기생충>, <오징어게임>, <신세계>, <타짜> 등 누구나 알만한 영화를 소재로 활용해 안전문화를 쉽고 재밌게 알리자는 취지였죠.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문화를 다루는 <기생충> 촬영 때가 기억에 남아요. 영화 개봉 당시 유행했던 '제시카 송' 대사를 차용했는데, 빠른 비트에 맞춰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의도하지 않게 안전에 관한 위협을 느낀다. 이번에 제작한 쇼츠 영상은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평소에 잘 인지하지 않았던 요령, 규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준다.

"매일 뉴스로 시청자분들을 찾아 뵙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앵커로서 늘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대전·세종지역 안실단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청주

맞잡은 손에서 피어나는 안전문花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 3월 9일, 에스컨벤션센터 희망의 홀에서 청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청주지역 안실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주지역 안실단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충청북도 등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등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운영되며 김경태 청주지청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충북지역의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제조 현장의 보호장비, 선택이 아닌 필수

모두가 지켜야 할 안전의 가치

모두에게 중요한 공통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청주지역 안실단은 그 가치를 '안전'에서 찾는다.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비교적 안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청주지역 안실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개인용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 인프라가 미비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모를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한 캠페인이다.

안전 벽지(僻地)는 없는 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장에는 보호장비의 착용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이 제한되는 곳도 많다. 이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호장비 및 안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주지역 안실단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모를 배포하여 임직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고자 노력했다. 이번 안전모 지급 캠페인을 시작으로 안전벨트,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다른 장비 지급 캠페인도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전슬로건

일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 서비스

함께 확산시키는 안전 문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안전문화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문화가 녹아 든다면 어떨까? 청주지역 안실단은 2023년 4분기 사망사고 예방 집중 기간에 지역사회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지역의 대표 사업장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그들의 상품에 안전문화 홍보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전문화 확산 파트너십에 함께하게 된 사업장은 깨끗한나라(주) 청주공장, (주)면사랑 진천공장, 한국도자기(주)이며,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이나 라벨에는 안실단이 홍보를 위해 제안한 안전 문구와 CI를 삽입하게 된다.

안전한 개인, 안전한 사회

이번 파트너십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제품 포장 또는 라벨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노출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하였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안실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문화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 유수의 사업장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구 노출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해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을 안전하게, 도민을 건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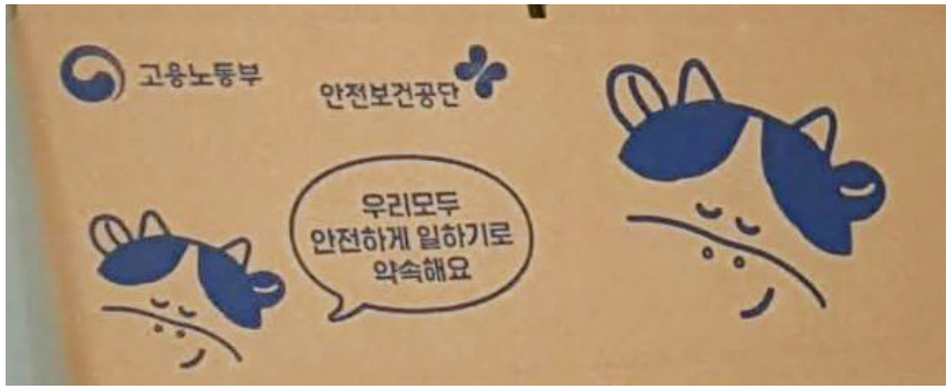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눈에 자꾸 보이면 마음에도 들어온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어느새 마음 속에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청주지역 안실단은 '청주, 또 한 번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 분평사거리 일대에서 안전문화 슬로건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된 홍보의 대상이었으며, 4분기 사망사고예방 집중기간도 함께 홍보하며 관내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를 고조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개선된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전모

하이트진로, 충북소주 안전문구

한국도자기 안전문구



매일유업 안전문구

면사랑 안전문구

충주

안전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다리 ‘Safety Bridge’

충북북부 충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충주지역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등 지자체와 노·사단체, 학계, 언론사 등 60여 명의 추진단 및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을 관할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라디오에서 안전을 알리다

사망사고 감축 라디오 캠페인

충주지역 안실단은 정부의 산업재해 감축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안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KBS 충주방송국과 함께 사망사고감축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망사고감축 라디오 캠페인은 신뢰감 높은 노·사·정 대표 리더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6회, 8주간 240회 송출하였다.

충주지역 안실단은 방송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노·사·정의 균형 잡힌 목소리를 담아내려 애썼고,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청취자들에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안전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1회차는 고용노동부 이점석 충주지청장이 안전문화확산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2회차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정민환 의장이 ‘안전한 일터,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북북부지역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며, 3회차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충주상공회의소 강성덕 회장이 ‘기업과 안전’을 주제로 기업 경영의 중심에 안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회차는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심미경 지사장이 안전문화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장려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충주지역 안실단의 라디오 안전문화 캠페인은 7월에도 이어졌는데, KBS 충주방송국 <생방송 충청은 지금> 프로그램에서 안전보건 전문가가 전하는 산재예방 인터뷰를 콘셉트로 진행했다. 1회차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용학 과장이 충북북부지역 산재 현황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2회차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장용우 팀장이 충북북부지역 중대재해 사례 및 재해예방 활동을 소개했다.

사망사고 감축 라디오 캠페인

이웃이 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도록

인구 변화와 산업재해

음성군 외국인센터 기부금 전달

2023년 10월 기준 음성군의 등록 외국인은 1만 1,815명으로 음성군 전체 인구의 11.45%에 이른다.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20% 안팎으로 추정된다. 음성의 외국인 비율은 충북지역에서도 눈에 띄게 높다. 충북지역 전체 등록 외국인이 4만 7,655명인데 이 중 24.8%가 음성군에 살고 있다. 음성군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 또한 높다. 최근 10년간 음성군의 사고재해자 536명 중 20.3%인 109명, 사고사망자 6명 중 2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충주지역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음성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과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충주지역 안실단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통역서비스 요원 'Safety Bridge'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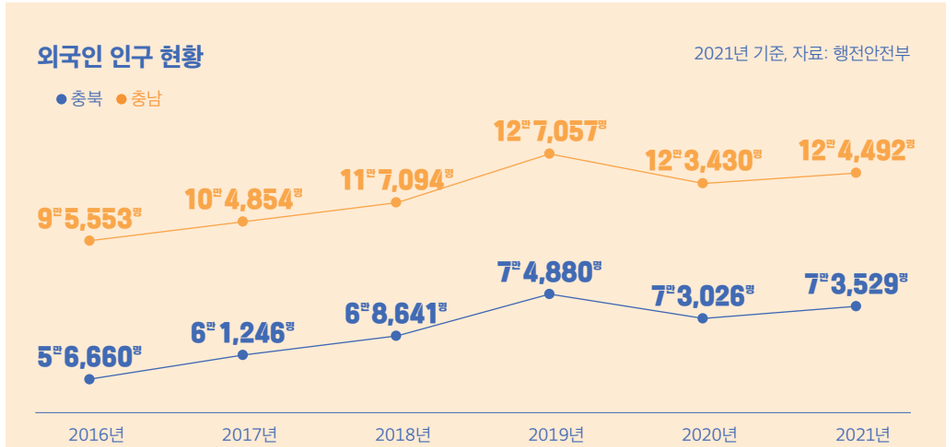
외국인 통역서비스 요원의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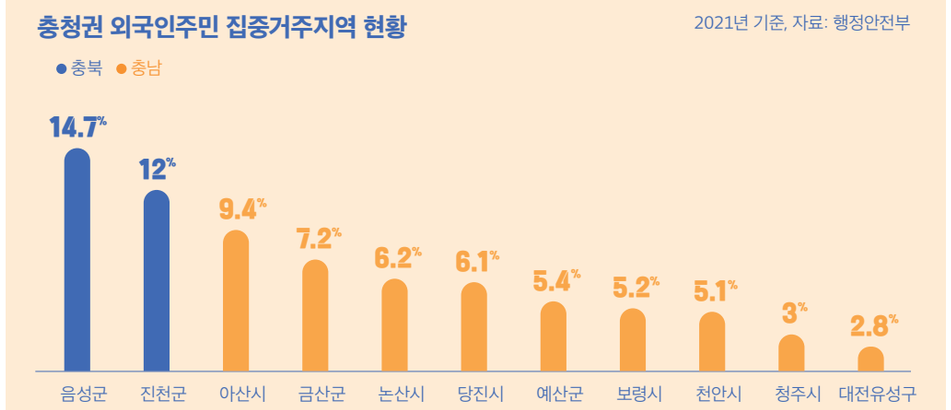
'Safety Bridge'란 모국어 통역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국인 통역서비스 요원을 말한다. 외국인 통역서비스 요원은 네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12개국 20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8월 발대식을 가졌다. 'Safety Bridge' 발대식에는 음성군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음성군외국인센터, 외국인 근로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 요원들은 5월과 8월 두 차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고, 5월에서 7월까지 10회, 29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충주지역 안실단은 앞으로 'Safety Bridge' 요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 예방 정보를 확실히 전달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안전의식 내재화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외국인 통역서비스 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관내 타 지자체로의 확산 기반도 마련하고자 한다. 충주지역 안실단은 외국인 통역서비스 요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사이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함께 안전한 충북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사회공헌활동

Safety Bridge 발대식





천안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운영

천안·아산·예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천안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9일, 천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주축이 되는 천안지역 안실단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내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 지역행사, 홍보물 배포 및 언론 보도 등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수료식

안전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천안지역 안실단은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목표를 뒀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하는 전략을 검토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통계에 주목,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천안지역 안실단은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 투자계획 등의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카데미형 교육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중소건설업체 CEO 대상 아카데미

천안지역 안실단은 의지는 있으나 실행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중견·중소건설업체 CEO를 대상으로 안전경영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안전점담 조직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조직운영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부족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절실했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듯 직원들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조직을 운영하는 CEO의 의식을 먼저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소건설업체 CEO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연 이유 중에 하나다.

건설업 사고 예방의 중요성

202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402명으로 산업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402명	184명	104명
	서비스업	그밖의 업종
	150명	34명

건설업 산재 감소, 예방이 답이다

2~3달의 장기 교육으로 효과는 UP!

천안지역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내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 중 사전 수요를 거쳐 25개소 CEO를 선정해 5월 24일부터 8주간 안전 아카데미 1기를 운영했다. 해당 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 총 16시간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집중도와 효과를 높였다.

교육방식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하는 강의를 이어가기 보다 토론식 방법으로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방법들을 토론하여 실현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각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강식 이후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에서는 먼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여 위험성평가 절차와 효과적 실행방안,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습 및 우수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이행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사례에 대해 2주에 걸쳐 알아보았으며,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개인 안전심리의 이해와 조직 안전문화를 향상하는 방안을 배워볼 수 있었다. 예정된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 교육 핵심사항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뒤 수료식을 개최했다.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수료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안전문화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카데미

지난 7월 12일에는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이 열렸다.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CEO 25명이 모두 수료했으며, 안전경영을 위한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건설업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아카데미의 경우 지역 건설업계와 관할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민·관이 협력해 실시한 전국 최초의 안전교육으로 처음 진행한 만큼 일정 조율과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천안지역 안실단은 아카데미 1기 반응이 좋았던 만큼 현재 21명의 CEO와 아카데미 2기를 진행, 앞으로도 건설업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건설업체 CEO 아카데미 2기 수료식

중소건설업체 CEO 아카데미 2기 개강식

보령

재미있고 알차게 깨닫는 안전문화

충남 서쪽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담당하는 보령·홍성·부여·서천·청양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보령지역 안실단)이 지난 3월 9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를 포함 노·사·민·정 합동 협의체 19개 기관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긴다

보령의 경제를 담당하는 웅천농공단지

보령 농어촌 지역의 공업화를 위해 만들어진 웅천농공단지는 1992년 22만 8,946㎡ 규모로 준공됐다. 이후로 많은 업체가 웅천농공단지에서 가동됐는데 현재는 18개 업체에서 근로자 3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웅천농공단지는 그 어느 지역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보령지역 안실단은 한국인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웅천농공단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위험성평가 알림이

보령 남쪽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웅천농공단지에 보령지역 안실단이 떴다. 보령지역 안실단인 고용노동청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웅천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을 방문해 안전문화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보령지역 안실단은 지난 5월에 개정된 최신 '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커피차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현장 방문 이후 보령지역 안실단은 웅천농공단지 근로자들은 물론 안실단 소속 직원들에게도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웅천농공단지 일대에서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청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보령시, 홍성군, 웅천농공단지 등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원이 캠페인에 참석해 안전문화 구호를 외쳤다. '안전 앞 우리는 하나',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함께 지킨 우리의 안전', '안전한 일터를 만듭시다' 등의 구호가 박힌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슬로건이 담긴 물티슈와 안전대책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보령지역 안실단은 웅천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포했다. 캄보디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등으로 번역된 경고 및 착용 스티커와 포스터를 제공해 안전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커피차였다. 초여름, 근로자들의 땀을 식히기 위해 커피 200잔을 준비하였다. 커피차에도 외국어로 번역된 안전 구호가 박혀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도 커피와 함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안전문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보령지역 안실단은 보령의 산업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매달 1회 이상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을 펼쳐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령 머드 축제와 함께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머드 축제는 즐기고! 더위는 날리고~

보령지역 안실단은 웅천농공단지 캠페인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시민에게도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지난 8월 4일에 개최한 보령 머드 축제에 참여해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진행되는 야외 축제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온열 질환을 막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한번 더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지역 안실단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보령시청,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루어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원 23명을 축제에 투입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부스를 만들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원들은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을 위해 폭염 질환 예방 OPS 자료와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종이모자 및 부채 등을 배포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무더위에 지친 축제 방문객들은 안실단 부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부스 곳곳에 놓인 안전문화 관련 자료에 관심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가상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VR 안전체험, 산재예방·산재보험·노무 관련 상담 부스 등 시민들의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 메시지가 담긴 그립톡 등도 증정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보령 머드 축제에서 진행한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확산한 보령지역 안실단. 앞으로도 보령지역 안실단은 지역 대표 축제에서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달해 지역 시민들 마음 속에 안전문화를 각인시킬 예정이다.

VR체험

머드배달존

외국어(태국어) 위험기계포스터

외국어 경고표지(급성독성물질 경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출처:고용노동부

현 행	개 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 곤란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체크리스트, OPS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평가시기 -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최초]**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근로자 참여 제한 -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숟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숟과정에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서산·태안

대형 화재와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장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서산·태안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서산·태안지역 안실단)은 지난 3월 10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대의회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고용노동부 노태승 서산출장소장, 안전보건공단 한인수 화학사고예방센터장, 서산시 성기찬 안전총괄과장, 태안군 이종윤 안전총괄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장을 비롯한 서산·태안지역의 안전관리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 실천운동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서산

서산은 전남 여수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불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이 입주해 있다. 수십 개의 기업이 큰 대형 사업장 규모로 입주해있는 만큼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다. 한번 화재가 나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 단순 사고가 아닌 대형 재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물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서산·태안지역 안실단은 대규모 정비보수 기간 중 추락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해 안전일터를 구축하고 산업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 최근 기상이변에 주목, 6월부터 시작한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온열질환 캠페인과 더불어 화학공장의 유기물 부패로 인한 중독, 질식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춘 취약시기별 핵심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화토탈 계획예방정비 안전문화 캠페인

화재, 폭발, 추락 및 끼임 재해 점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SK온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의 비결은 보고 또 보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캠페인&안전점검

지난 5월 16일, 서산·태안지역 안실단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KCC실리콘 사업장 후문에서 출근길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 사업장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점검을 맡은 13명은 MC/HCL, M, FS 등 현장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3개조로 편성해 후성정공, 다모아, 케이지아이 등 8개사의 안전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점검은 강관 비계, 이동용 사다리 안전 블록 점검이 철저한지, 장선방향 1.5미터 이상으로 비계 설치 시 제3자의 구조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압력용기 검사필증 일부 미부착, 중량물 운반 시 크레인의 후크해지장치 점검 및 불량 시 교체가 필요한 것 등을 살펴보았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 서산·태안지역 안실단의 나머지 인력은 출근길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집중했다.

하절기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지구온난화 현상이 급격히 가속화되면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대두되고 있다.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계절, 실외작업이나 밀폐공간을 유지보수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152명(사망 23명)으로 특히 화학공장의 경우 하절기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증가하고 유기물 부패로 인한 중독과 질식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태안지역 안실단은 관내 사업장과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산재사고사망에 대한 강력한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7월 11일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와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사업장 안전팀 및 노동조합으로 꾸려진 38명이 모여 출근길에 마주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안전문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전개해 하절기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름 작업

그늘

근로자
수시로 물 마시기

사업주
근로자가 수시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물

근로자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취하기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소 근처에 그늘이 있는 휴식 장소를 마련한다.

휴식

근로자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폭염경보시 매시간 15분 이상 충분히 휴식한다.

사업주
사업주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자제시킨다.

KCC실리콘 안전문화 캠페인

전국 단위 활동사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본부에서는 일회성 행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문화를 노출하는 것과 전국 단위의 파급력이 있는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찾고자 힘을 기울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포스터 게시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홀더 스티커

작업용
차량 부착 디자인

고속도로 휴게소
스틸배너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표출

본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본부는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전국 단위의 파급력이 있는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찾고자 힘을 기울였다.

우체국 소포 상자 10만 개와 테이프 1만 개에 안전메시지

본부는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지난 4월 4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협력을 추진했다.

서울과 경인지역 우체국에 안전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와 전국 우체국에 친환경 포장테이프 1만 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소포상자에 안전메시지를 전달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체국 소포 상자 홍보 시안

600만 가구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메시지

본부는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으며 친숙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을 추진했다. 본부는 안전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광고문구, 이미지를 제작해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는 약 600만 가구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슬로건으로 삽입해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작업 중 마주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유한 저압보수차 및 활선작업차 550여 대의 차량 외부에 안전슬로건을 부착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친근하게 마주할 기회가 늘어나 점진적으로 안전의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안전보건 확산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요금 청구서, 작업용 차량 부착 디자인

4대보험 고지서 210만 장에 안전메시지

본부는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5월 22일 안전문화 실천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활동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를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4대보험 고지서 210만 장에 산업현장에서 스스로 위험성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23년부터 의무 적용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안전메시지를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발송했다.

또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전략적 이벤트를 병행하여 8천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개소 내 안전메시지

본부는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10월 20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만전을 기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의 접점 지역으로 범국민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안실단 모션그래픽과 위험이를 찾아라 등의 안전문화 TV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휴게소 내 입점 카페 및 음식점의 컵 홀더와 식품용기에 안전문화 메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후 판매하고, 휴게소 건물 입구나 화장실 입구 등에는 안전문화 슬로건이 담긴 배너를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주 고객인 운전자와 근로자들이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하고 안전의식이 내재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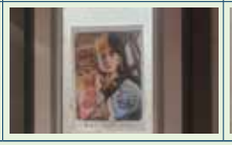
휴게소 내 안전문화 슬로건 확산 물품

포스터

실외형 스틸 배너

스티커

전국 207개 휴게소 실제 사용 우수 사례

스틸배너 설치	흡연부스 내 포스터 게시	커피홀더 스티커	휴게소 내 영상표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참여기관

서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동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앙회,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안전협의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서울본부, 서울직업병안심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서울지부, 안전신문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대한재해예방기술(주), 한국종합안전(주), (주)우아한청년들, (주)쿠팡,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성동구청, 광진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중대재해대응과, 강원도 안전정책과,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과, 화천군 안전건설과, 인제군 안전교통과, 양구군 안전총괄과, 강원도개발공사, 북부지방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하이트진로(주), 선원건설(주),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산업보건센터, 한국안전원주식회사, 사랑산업보건컨설팅,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춘천안전기술국,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강원재해예방주식회사, 강원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MBC, KBS, G1방송

태백, 삼척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태백시 안전과, 삼척시 재난안전과,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회, (주)삼표시멘트, 태백신문, 프레시안

강릉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강릉시 경제진흥과, 한국노총 강릉지역지부, 강릉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영동남부지역군 현장소장협의체, 한라시멘트(주), 롯데칠성음료(주) 강릉공장, 강원여객자동차(주), 신화건설(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가톨릭관동대 산업환경보건연구센터, (주)세이프지, 한국안전원(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릉안전기술국, 강원도민일보

원주, 횡성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원주시 안전총괄과, 원주시 중대재해예방과, 횡성군 재난안전과,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원주횡성안전보건관리자모임(건설업), 원주횡성안전관리자협의회(제조업 등), 원주횡성보건관리자협의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대성세이프티, (주)제일안전기술원,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한국산업안전기술원(주), 사랑산업보건컨설팅, (KS)안전기술, 강원재해예방(주), 강원재해예방컨설팅(주), 삼일안전기술원(주),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중앙건설안전기술,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강원근로자건강센터

영월, 평창, 정선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한국노총 강원영평정 지역본부,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 제조서비스 등 안전관리자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 시멘트제조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영월지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한국산업안전기술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한국안전기술협회 부산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한국외식산업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KT 부산경남광역본부, 부산일보, KNN, 동국제강(주)부산공장, 삼성전기(주)부산공장, (주)풍산 부산사업장, (주)동일고무벨트, 르노코리아자동차(주), CJ제일제당(주)부산공장, (주)강남, 대선조선(주), 부산신항만(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 삼성물산(주)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포스코건설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대건설(주) [가야동 공동주택 1·2차 신축공사], SK건설(주)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창원시 중대재해예방과, 함안군 중대재해예방과, 창녕군 중대재해예방과, 의령군 중대재해예방과,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창원지역 대기업 안전관리협의체, 창원지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체, 직업건강협회 부산경남지부, KBS창원,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사)대안산업보건협회 창원센터, (주)서경건설안전

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울산석유화학단지협의회, 울산여천안전협의회, 온산공단안전관리협의회, 울산건설업안전관리협의체,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울산안전소통위원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한국노동자총연맹 울산본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 경상일보

양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김해지역 안전관리자협의체, 양산지역 안전관리자협의체, 밀양지역 안전관리자협의체, 경남동부,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동부지회,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상공회의소, 김해상공회의소, 경남매일

진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진주시 시민안전과, 사천시 재난안전과, 거창군 안전총괄과, 남해군 재난안전과, 산청군 안전총괄과, 하동군 안전총괄과, 함양군 안전도시과, 합천군 안전총

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안전관리과, 주택관리공단 주거안전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관리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관리실, 국방기술품질원 안전보건팀, 한국남동발전 산업안전부, 한국세라믹기술원 안전환경팀,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 진주상공회의소 사천상공회의소, 진주KBS, (주)서경방송, 경남일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제일병원 시설관리부, 진주고려병원 보건관리실, (사)건설재해예방협회 경남지회,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삼한건설안전(주), (주)태양안전기술단, 한국건설지원단(주) 기술부

통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통영시 시민안전과, 거제시 시민안전과, 고성군 안전관리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거제상공회의소, 통영상공회의소, 경남 조선업 안전보건협의회, 거제·통영 안전관리자협의회, 경남매일, 한국안전연구원(주), (의)대우의료재단

대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청 시민안전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 안전감사실, 대구교통공사 안전관리처, 한국철도공사 대구지역관리단 안전보건처,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대구청 안전관리자협의회, 대구서부지청 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축산농협 지도경제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영남산업안전관리(주), 주식회사산업안전기술원, 주식회사한국안전기술원, 한국안전관리(주), 한국안전기술공사(주), 가톨릭산업안전(주),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주)대구가톨릭산업보건센터, (주)이에이치에스연구소, 대경안전컨설팅(주), (주)신영씨엔에스, (주)한국안전컨설팅, 건설안전경영, 신한국건설안전(주), 서상건설안전(주), (주)대한안전기술원, (주)삼진구조안전기술원, (주)영남건설안전, 진안전컨설턴트, 한국전기공사협회안전기술원1사업소, 대경안전지도사사무소, 안전종합기술원주식회사, 대한건설안전기술원, 제일안전관리(주), (주)정인안전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대성에너지

포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사)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 (주)한국산업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동부지사, (재)포항성모병원,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병원), 한국안전기술협회 포항지회, (주)틱콕, 신한국건설안전(주)(포항지사), (주)한국안전컨설팅(포항지사), (사)경북동부안전관리인협의회, 경주시안전보건관리협의회, 포항제철소 패밀리사 안전관리인협의회, 4대 철강업체 더 안전일터 만들기 협의체, 경주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체, 포항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체,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주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포항지역지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역지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매일신문

구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청, 구미시청, 한국노총 구미지부, 경북 경영자총협회, 김천 상공회의소. 구미김천안전관리협의회(제조), 김천구미안전관라자협의체(건설),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북부지사, 매일신문 경북서부본부, 순천향대학부속구미병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주)미래산업보건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영주시청, 문경시청, 상주시청, 봉화군청,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 영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 안전관리협의회, 봉화·영주 건설안전협의회, 문경·상주 건설안전협의회, (주)대한안전기술원

안동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안동시청 행정지원실,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의성군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과, 영양군청 자치행정과, 청송군청 안전정책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한국노총 안동지부, 안동상공회의소, 안동 안전협의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 (주)한국산업안전기술원안동지사, (주)대한안전기술원, SK바이오사이언스,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인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인천교육청 안전총괄과, 인천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근로자 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인천노동권익센터,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중부지역본부, (주)세이프티컨설팅, (주)제이세이프티, 중부종합안전, 대한산업보건협회인천산업보건센터,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인천보건안전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인천 남동공단 사업장협의회, 인천 서부공단 사업장협의회, 금속기계분야협의회, 비금속분야협의회, 연합분야협의회, 식품제조연합회, 남동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회, 송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회, 영종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회, 인천북부 현장소장협의회, 항만협의체, PSM(발전사)협의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유한)스태츠칩팩코리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SK인천석유화학(주)

경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노동안전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수원시 경제정책국, 용인시 시민안전과,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직업건강협회 경기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경기일보,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사)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삼성전자(주), 기아(주)AutoLand화성

부천, 김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고용노동부 김포지청, 부천시청, 김포시청,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부천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엘지헬로비전, 부천신문, 김포신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근로자건강센터,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부천시일쉼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

회,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김포이젠지식산업센터,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부천김포안전관리자협의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 (주)한국안전연구소, 에스텍이엔씨(주), 중소기업안전기술원(주), 한신이에스엠, 경인산업보건컨설팅, 부천대성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주)이에이치에스프렌즈, 경인산업안전연구소, 중부종합안전(주), 더안전과품질지도사 사무소, 바로플랜안전지도, 조엔지니어링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 GS파워(주), SK에코플랜트(주)

안양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의왕소방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한국마사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의왕시지부, 안양신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기아(주) AutoLand광명, 쿠팡,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소, 삼영운수(주), 광명 뉴타운 현장소장협의체, 과천 지식정보타운 현장소장협의체, 안양지청 건설안전관리자협의체

안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산시청, 시흥시청, 안산소방서, 시흥소방서,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주)경기매일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처,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시흥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안산시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시흥시협의회, 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 한국노총 시흥지역본부

의정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양주시 안전건설과, 포천시 안전총괄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철원군 안전총괄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중북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동북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북부건설현장협의체, 검준일반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재난안전과, 광주시 시민안전과, 이천시 안전총괄과, 하남시 안전정책과, 여주시 자치행정과, 양평군 안전총괄과, 성남상공회의소,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이천상공회의소, 건설협의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한국산업안전연구원, 일터노무안전관리, 한국안전기술연구원

평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시 총무과, 오산시 안전정책과, 안성시 행정과, 평택상공회의소, 오산상공회의소, 안성상공회의소, 한국노총 평택지부,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국노총 안성지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현장소장 지역협의체, 안전관리자 지역협의체, (사)포승경영자협의회(포승산단),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중앙안전보건연구원, 굿모닝산업보건센터, 한국건설종합안전(주),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한경국립대학교, 경기일보

고양, 파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고양시, 파주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 고양상공회의소, 파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세종안전기술(주), 제일안전기술(주), 선진건설안전(주), 고양지역 안전관리자협의체, 파주지역 안전관리자협의체, (사)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사)외식업중앙회 일산구지부, (사)외식업중앙회 덕양구지부,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교하문발 산업단지협의회, 경기일보, LG디스플레이(주)

광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국립나주숲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BC광주방송, 남도일보, 중흥토건(주),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삼성전자(주)광주사업장,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전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전주시 안전정책과, 남원시 안전재난과, 순창군 안전재난과, 무주군 안전재난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노총,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안전보건네트워크, 전주완주산단안전관리자협의회, 건설안전협의체, JTV, 새전북신문, 연합뉴스,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우석대학교

익산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익산시 시민안전과, 김제시 안전재난과,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김제소방서 소방행정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익산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익산시지역지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익산군산축협, 익산지역 안전보건협의체, 익산김제 건설안전협의체, (주)하림, (주)광전자, (주)푸드웨어, 원광대학교 안전관리과

군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군산시 안전총괄과, 고창군 안전총괄과, 부안군 안전총괄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군산상공회의소,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제조업 안전보건관리협의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협의체,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군산산업보건센터,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군산미래신문, 투데이군산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청, 영암군청,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사)건설재해예방협회 광주지역본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전남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대한조선(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서남권안전관리자협의회, 전남서부지역안전협의체, 목포MBC, 전남매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여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여수지청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여수 건설업 안전관리자협의회, 순천·보성·고흥 건설업안전관리자협의회, 광양 건설업안전관리자협의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한국안전관리협회, 여수MBC

제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차지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도하안전기술원, 신한안전기술원(주), 안전보건진흥원 제주지사, (주)에이원세이프티, (주)제이제이안전, 제일세이프티(주), (주)한국건설안전, 건설안전관리자 협의회, 식료품제조업협의체,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지회

대전, 세종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재해예방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대전세종충남 경영자총협회, 대전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전·충청지역 관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체, 대전 서남부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 세종시 건설업 안전관리자협회, 세종 토목 안전관리자협의체, 대전산업안전보건협의회,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 , (사)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사)건설재해예방협회 대전본부, (주)금강건설안전공사, (주)한국건설안전공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주)한국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대전보건안전센터,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대전보건대학교 환경안전보건과, 국방과학연구소, 충청지방우정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청주시 경제교통국 일자리정책과, 증평군 재난안전과, 진천군 안전총괄과,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청주상공회의소, (주)건설안전지원센터, (사)대한영양사협회 충북영양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한국안전기술협회, (사)직업건강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한국외식산업진흥원 대전충청지회, 한국산업안전관리원(주) 대전충청지점, 청주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진천·증평건설안전관리자 협의체, 한국여성경제인합회 충북지회, CJB 청주방송, TBN 충북교통방송, 이현안전환경연구소 주식회사, 하나로산업보건연구소 주식회사, (의)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주식회사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대한안전관리센터 주식회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주)한국휴먼안전컨설팅,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 보은사업장,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청주공장, 주식회사 한화방산 보은사업장,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진천공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충주시 안전총괄과, 제천시 안전정책과, 음성군 재난안전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사,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충주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주)대흥건설,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 시멘트사안전관리협의회, 충주지역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 음성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연합협의회, 중원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제천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건국대(소방방재융합학과), 한국교통대학교(안전융합공학과), 세명대학교(보건안전학과), 충주KBS

천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아산시 안전총괄과, 당진시 안전총괄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천안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대한종합건설협회 충남도회 천안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남도회, 철강 및 당진·예산 사업장 대표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천안·아산 사업장 대표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아산 제조업안전관리자협의회 [동원시스템즈(주)]

보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보령시청 안전총괄과, 홍성군청 안전관리과,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서해안 안전협의회, (보령)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홍성)구항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여)은산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서천)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청양)화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주)세종재해예방기술원

서산, 태안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서산시 안전총괄과, 태안군 안전총괄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서산석유화학단지 안전협의회, 서산 안전관리협의회(자동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협의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편찬위원

고용노동부

서울청 | 이원지
부산청 | 박재영
창 원 | 장석제
울 산 | 이언주
양 산 | 김동주
진 주 | 주상민
통 영 | 김현욱
대구청 | 이동환
포 항 | 안병혁
구 미 | 도세환
영 주 | 최준희
안 동 | 박민훈
중부청 | 한진택
경 기 | 이정엽

부 천 | 이 훈
안 양 | 서동환
안 산 | 이재환
의정부 | 류미영
성 남 | 김 인
평 택 | 양재연
김대규
고 양 | 장재훈
강 원 | 이원기
태 백 | 신재웅
강 릉 | 허 윤
원 주 | 박환주
영 월 | 이관봉
광주청 | 김창관

전 주 | 이태선
익 산 | 채병주
군 산 | 정찬호
목 포 | 김년섭
여 수 | 박은진
제 주 | 김상원
대전청 | 지정인
청 주 | 임유택
충 주 | 정안철
천 안 | 이동인
보 령 | 이진윤
서 산 | 김종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채우리
서울동부지사 | 하예지
서울남부지사 | 임진석
인천광역본부 | 박 현
경기중부지사 | 김유정
강원지역본부 | 양슬기
강원동부지사 | 박창훈
전북지역본부 | 신지훈
광주광역본부 | 이소라
전남지역본부 | 신세호
전남동부지사 | 임아름
제주지역본부 | 조광호
전북서부지사 | 우현희
부산광역본부 | 정예진
울산지역본부 | 정 권

경남지역본부 | 서승원
경남동부지사 | 조남현
충북지역본부 | 허정강
충남지역본부 | 전준우
충북북부지사 | 김윤선
대전세종본부 | 이소정
경기지역본부 | 유연선
경기북부지사 | 문신희
경기서부지사 | 노경우
경기동부지사 | 김지훈
대구광역본부 | 이혜선
대구서부본부 | 이희주
경북지역본부 | 조여재
경북동부지사 | 여희찬
고양파주지사 | 강효진

총 괄 |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김용욱 사무관

간 사 |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부 강경완 과장, 이지완 대리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발행일 2024년 3월 15일
발행인 류경희, 최성원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총괄진행 황혜정
원고집필 문수민, 황혜민, 김태민, 박신영, 우수정
교정·교열 김영은
아카이빙 전혜정
편집디자인 권자영, 김용수, 성진선, 윤별이
행정지원 김회영
인쇄 태광피앤씨

2023-안전문화홍보실-1140

『202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사례집』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기-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사례집』에 실린 사진,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